

# 충남 지역 문화축제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자문보고서

2019. 10. 31.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순천향대학교  
SOON CHUN HYANG  
UNIVERSITY

##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충남 지역 문화축제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의 자문 결과로 제출합니다.

2019. 10. 31.

작성자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곽규태 교수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 등은 충청남도의회 공식의견이 아니라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힙니다.



# 차 례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3
3. 보고서의 구성 .....	4
II. 지역 축제의 개념, 유형 및 특성 .....	5
1.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및 유형 .....	5
1) 지역 축제,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	5
2)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유형 .....	7
2.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발전과정 및 성과 .....	8
1) 문화관광축제의 발전과정 .....	8
2)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	11
3. 지역 축제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 .....	14
1) 경제적 특성 .....	14
2) 사회적 특성 .....	15
3) 문화적 특성 .....	17
4. 지역 축제의 정책적 특성 .....	18
5. 지역 문화관광축제 육성 정책의 개선방향 .....	20
1) 현 정책의 문제점 .....	20
2) 정책적 지향점 .....	20
III. 충남 지역 축제 현황 및 운영실태 .....	23
1. 충남 지역 축제 현황 .....	23
2. 충남 지역 축제 운영실태 상세 .....	25
1) 지역별 현황 .....	25
2) 계절·시기 .....	26
3) 축제 연혁 .....	27

4) 축제 소재 .....	28
5) 축제 예산 .....	31
6) 축제 운영주체 .....	34
3. 충남 지역 축제 관련 자치법규 운영 현황 .....	35
4. 소결 및 시사점 .....	37
<b>IV. 충남 지역 문화축제의 경쟁력 진단 .....</b>	<b>39</b>
1. 분석방법 .....	39
2. 경쟁력 진단 .....	39
1) 축제 방문객 수 .....	39
2)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	43
3) 그 밖의 대외 수상 등 실적 .....	44
4)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 평가조사 결과 .....	45
3.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토론 .....	47
1) 조사개요 .....	47
2) FGD 결과 .....	48
3. 소결 및 시사점 .....	52
<b>V. 결론 및 논의 .....</b>	<b>54</b>
1. 연구결과 요약 .....	54
2. 충남 지역 문화축제 경쟁력 강화방안 .....	60
1) 축제관련 조례 개정 .....	60
2) 축제 육성체계 정립 및 지역 관광활성화 연계 .....	63
3) 기타 수요맞춤형 축제 차별화, 상품화 노력 강화 .....	64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64
<b>참고문헌 .....</b>	<b>66</b>

## 표 차례

[표 I-1] 2019년 전국 지역 축제 개최 계획(단위: 개) .....	1
[표 I-2] 최근 3개년(2017~2019년) 충남도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 .....	2
[표 II-1] 축제와 일반 문화행사와의 구분 기준 .....	5
[표 II-2] 순수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축제의 비교 .....	7
[표 II-3] 축제 지향성에 따른 분류 .....	7
[표 II-4] 축제 운영방식 및 소재특성에 따른 분류 .....	8
[표 II-5] 문화관광축제 육성방법 .....	10
[표 II-6]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	11
[표 II-7] 지방축제의 비효율 개선 .....	12
[표 II-8]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의 예 .....	13
[표 II-9]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	14
[표 II-10] 축제 지원정책의 유형 .....	18
[표 II-11] 지역 축제의 지원정책 방향 .....	22
[표 III-1] 2019 지역 축제 개최 계획(단위: 계) .....	23
[표 III-2] 2019 충남 지역 축제 현황 .....	23
[표 III-3] 2019년도 충남 문화관광축제 .....	24
[표 III-4] 충남 지역 축제 소재별 개최 내역 .....	29
[표 III-5] 충남의 지역특산품 소재 지역 축제 개최 내역 .....	30
[표 III-6] 충남의 생태자연 소재 지역 축제 개최 내역 .....	31
[표 III-7] 충남 지역 축제 예산 현황 .....	31
[표 III-8] 충남 지자체별 축제 관련 자치법규 현황 .....	36
[표 IV-1] 충남 지역 축제 방문객 수 (2016~2018년) .....	40
[표 IV-2] 충남 지역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	43
[표 IV-3] 문화관광축제 이외의 지역 축제들의 대외 수상 및 인증 성과 개요 .....	44
[표 IV-4] FGD 참여 전문가 정보 .....	47
[표 V-1] 2019 충남 지역 축제 현황(92개) .....	54

[표 V-2] 충남 지자체별 축제 관련 자치법규 현황 .....	57
[표 V-3] 충남 지역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	58
[표 V-4] 충남 축제 관련 조례 현황 .....	61
[표 V-5] 축제 관련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현황 .....	62
[표 V-6] 충청남도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2017년) .....	63

##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론 .....	3
[그림 II-1] 축제 생태계 .....	6
[그림 II-2] 문화관광축제의 탄생모델과 초기지원 축제 .....	9
[그림 II-3] 지방정부의 단계별 지역 축제 지원정책 .....	19
[그림 II-4] 축제의 지향점 .....	21
[그림 III-1] 충남 지역 축제 지역별 개최 현황 .....	25
[그림 III-2] 충남 지역 축제 계절별 개최 현황 .....	26
[그림 III-3] 충남 지역 축제 월별 개최 현황 .....	26
[그림 III-4] 충남 지역 축제 최초개최 연별 현황 .....	27
[그림 III-5] 충남 지역 축제 소재별 현황 .....	28
[그림 III-6] 충남 지역 축제 운영방식 관련 현황 .....	35
[그림 IV-1] 전국 문화관광축제의 전반적 만족도 .....	45
[그림 IV-2] 전국 문화관광축제의 상대적 차별성 .....	46
[그림 IV-3] 전국 문화관광축제 재방문 및 타인추천 의사 .....	46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전국 지역 축제 개최계획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2019년 개최 예정인 전국의 지역 문화축제는 884개 중, 92개(10.41%)의 문화축제가 충남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
  - 17개 광역 지자체의 연평균 지역 축제 개최 수는 약 52개 수준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표 1-1]과 같이 충남(92개)은 전남(107개), 경기(105개), 서울(93개)에 이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축제를 연중 개최(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표 1-1] 2019년 전국 지역 축제 개최 계획(단위: 개)

합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4	52	93	44	25	32	8	15	20	2	105	68	49	92	50	107	68	66	40
(순위)		(3)								(2)			(4)		(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 개최되는 지역 축제 수에 비해, 문체부가 매해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선정 비율과 선정 등급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
  - 문체부는 1995년부터 전국 지역 축제 중, 문화관광산업의 가치가 우수한 지역 축제를 선정해 공시하고 있으며(문체부 문화관광진흥과), 4단계 등급 분류<유망 축제(4등급/20개)→우수 축제(3등급/10개)→최우수 축제(2등급/7개)→대표 축제(1등급/3개)>에 따라 전국 지역 축제 중 약 41개를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예산과 홍보를 지원
  - 한편 문체부는 최근 4단계 등급 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별도로 선정해 “글로벌 육성 축제(4개 내외 선정)”를 지정하고 있으며, 유망 축제의 아래 단계에서 번외로 “육성 축제(5등급/40개)”도 신설해 운영 중

-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충남의 지역 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상대적 경쟁력을 인증 받은 축제는 총 5개
  - 보령머드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 한편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은 글로벌 육성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제외하면, 최근 3년 간 대표 등급 축제(1등급)와 최우수 등급 축제(2등급)에 선정된 지역 축제가 전무
- 심지어 2019년 평가에서는 기존의 우수 등급 축제(3등급)였던 <강경젓갈축제>와 <부여서동연꽃축제>조차 유망 등급 축제(4등급)로 하향

[표 1-2] 최근 3개년(2017~2019년) 충남도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

평가연도	글로벌육성축제 (별도)	대표축제 (1등급)	최우수축제 (2등급)	우수축제 (3등급)	유망축제 (4등급)
2017년	보령머드축제	X	X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역사축제
2018년		X	X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축제
2019년		X	X	X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역사축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및 문체부 보도자료(2018.12.31).

- 무엇보다 충남 지역 축제에 대한 방문객 수(연도별)가 크게 감소해, 2019년 총 방문객 수는 12,163천 명(전년대비 8,531천 명 감소, 41% 급감)으로 확인
  - 지역의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백제문화제(공주)>, <백제문화제(부여)>,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등의 방문객이 크게 감소
-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충남 지역 축제의 다수가 축제 콘텐츠 차별화와 관광 상품화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의 개

선을 위해서는 도정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책적 역량과 해안을 모을 필요

- 지역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소비자만족도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미치는 효과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우수한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체계성을 강화할 필요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축제 콘텐츠의 개발 장려 및 지역의 정체성,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 지역 축제의 육성 필요

## 2)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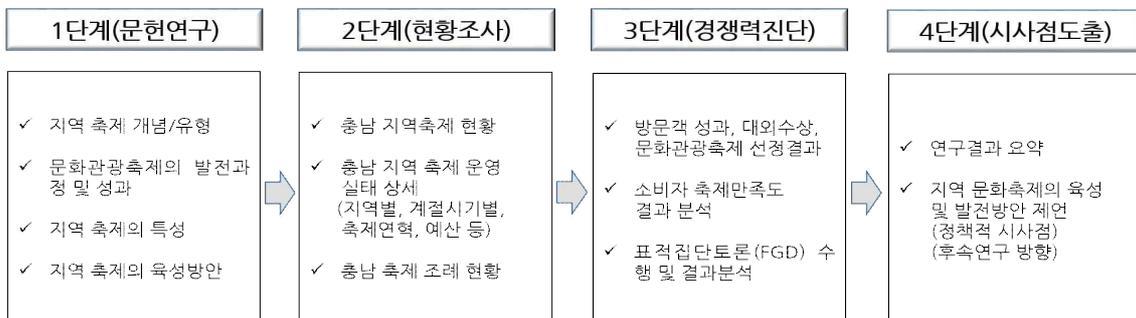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충남 지역의 문화축제 현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시행해 향후 정책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이를 통해 충남도 지역 축제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편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작성된 연구보고서가 아니며, 따라서 탐색적 차원의 충남 지역 축제의 현황 점검을 위한 사전 예비 보고서 성격을 지님

##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이 보고서는 총 4단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며, 각각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구 방법과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 현황조사 → 경쟁력 진단 → 시사점 도출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수행



[그림 I -1] 연구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론

① 【1단계: 문헌연구】 지역 축제의 개념과 유형, 특성을 정리

- 지역 축제, 문화관광축제, 문화축제 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주요 문헌자료 수집 분석
- 학술적 논의들을 종합해, 지역 축제의 특성과 파급효과, 육성방안에 대한 개요를 제시

② 【2단계: 현황조사】 충남 지역 축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총괄 조사 및 정리

- 2019년 개최예정인 92개 지역 축제에 대해 문체부 공개 자료와 연구진이 자체 수집한 2차 자료를 결합해 충남 지역 축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주요 항목별로 점검

③ 【3단계: 경쟁력 진단】 문체부 평가, 소비자평가, 전문가 의견을 통해 충남 지역 축제의 현 수준 경쟁력을 평가

-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평가의 연도별 시행결과, 2016년 전국 문화관광축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문화관광축제 전문가 5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지역 문화 축제의 경쟁력과 문제점을 진단

④ 【4단계: 시사점 도출】 충남 지역 축제의 육성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앞서 수행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동시에 3단계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역 축제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

### 3. 보고서의 구성

○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지역 축제의 개념과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음. 축제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문화관광축제의 발전과정과 경제, 사회, 문화, 정책적 특징 등을 정리해, 향후 논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다졌음
- 3장에서는 <충남 문화관광축제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확인 하였으며 다양한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충남 지역 축제의 일반적 경향과 추세,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4장은 현존하는 평가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충남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5장에서는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음

## II. 지역 축제의 개념, 유형 및 특성

### 1.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및 유형

#### 1) 지역 축제,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 축제는 주제를 가지고 공공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여가와 관광목적의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이벤트를 의미(오훈성, 2016; 한국관광공사, 2013)

- 본래, 축제란 경사스러운 날(祝)에 드리는 제사(祭)에서 비롯되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누대에 걸쳐 축적한 고유문화를 특정한 기념일에 표출하는 축하행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뜻함(류정아 외, 2006)
- 축제는 [표 II-1]과 같이 다발적 문화행사와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음

[표 II -1] 축제와 일반 문화행사와의 구분 기준

기준	축제	문화행사
소재성	명확한 소재를 가짐	소재가 불명확하고 변동이 잦음
정례성	정례적 개최 및 지속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불규칙한 개최, 재정지원 중단 시 폐지 가능성이 높으며, 주체의 주인의식의 부재
수용자와의 소통	수용자 주도성 확보를 위한 소통 및 참여 채널의 확보	수용자의 필요보다는 행정기관 또는 특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기획됨
네트워크	유관기관, 단체, 협회, 관련동아리와 네트워크 형성 및 점진적 강화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구성이 취약하거나, 형식적 네트워크에 머무름
자원조달	축제재원의 조달 방안이 다각화 되어 있거나, 다각화를 위한 활동이 있음	축제 재원을 서울시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조달처가 일원화되어있음
시기성	개최 시기 선정 기준이 명확하며 개최 시기가 일정, 지속될수록 시기성이 강화	개최시기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시기가 편의적으로 변동되는 경우도 있음
장소성	개최장소가 일정하며,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지속될수록 장소성이 강화	개최장소 선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편의적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음
프로그램다각화	대표프로그램, 주제성 프로그램, 부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유희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보유함	단일 공연행사,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연행사를 제외한 전시성 행사의 경우 유희성이 부족

출처: 오훈성(2013).



[그림 II -1] 축제 생태계

출처: 한국관광공사(2013).

- 축제는 창조산업이자 문화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역주민·관광객·축제산업 3A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창조산업·문화·소통의 3C를 이루어지는 관계라 할 수 있음
- 축제를 통한 관광객과 축제산업의 상호작용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콘텐츠 개발과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으로 이어져 창조산업으로서의 가치와 효과를 발생시킴
- 축제산업과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은 삶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역 문화를 형성함
-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류와 소통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함

○ **지역 축제: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둔 문화제, 페스티벌 예술제, 제전, 경연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는 지역의 모든 축제를 의미**

- 지역(地域, region)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며, 일정한 지표면 상에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환경이 유사한 지표공간으로써 지역별로 여러 환경들이 서로 유기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지역만의 ‘고유한 지역성’을 나타냄
- 이에, 지역 축제는 고유한 지역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기념일에 자신들의 문화를 표출하는 축하행사를 의미
- 지역 축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 지역 이미지 강화,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여가 기회 제공에 기여

○ 문화관광축제: 특산물, 전통문화·민속,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를 관광 상품화한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및 지원하는 축제를 의미(류정아 외, 2006)

- 정부는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전국의 지역 축제 중에서 외래 관광객 유인력이 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축제를 선정한 후 대내·외에 홍보하고 일부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으며, 이를 문화관광축제라 칭함
- 즉,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축제 중에서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축제를 선별하여 문화관광축제로 명명한 다음, 지역의 상징적 문화콘텐츠를 찾아 이를 축제에 연계시키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축제의 고유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지원을 시행([표 II-2] 참조)

[표 II -2] 순수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축제의 비교

구분	순수 지역 축제	문화관광축제
개최목적	지역문화 창달, 주민화합	지역이미지고양, 지역경제활성화
목표시장	지역주민	외지관광객
축제성격	자족적 즐거움이 중요한 내부지향적 행사	마케팅이 중요한 외부지향적 행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 2)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유형

○ 먼저, 축제의 유형은 축제 지향성, 운영방식, 소재 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음

[표 II -3] 축제 지향성에 따른 분류

명칭	내용
내부지향형	지역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역사의식과 애郷심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내부를 목표로 하여 실시되는 축제로 현대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인 목적을 가진 축제
외부지향형	지역의 관광 및 산업발전 등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축제로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쌍방형	내부지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외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의 축제

[표 II -4] 축제 운영방식 및 소재특성에 따른 분류

구분	내용	
운영 방식	관 중심형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축제
	민간주도형	추진위원회 등의 민간조직을 형성하여 민간조직이 중심이 된 축제
	주민중심형	주민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순수 주민형 축제
	대행사중심형	전문 대행사가 모든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축제
	네트워크형	주민, 자치단체, 대행사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운영하는 축제
소재 특성	문화예술형	문화 및 예술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축제
	생태자연형	바닷물이 갈라지는 자연현상이나 반딧불이와 연꽃 등 동식물을 소재로 구성한 축제
	전통역사형	지역에 전승되는 전통문화, 역사적 유물·사실이나 인물을 핵심소재로 구성한 축제
	지역특산품형	지역의 특산물을 핵심소재로 구성한 축제
	주민화합	지역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한국관광공사(2013).

## 2.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발전과정 및 성과<sup>1)</sup>

### 1) 문화관광축제의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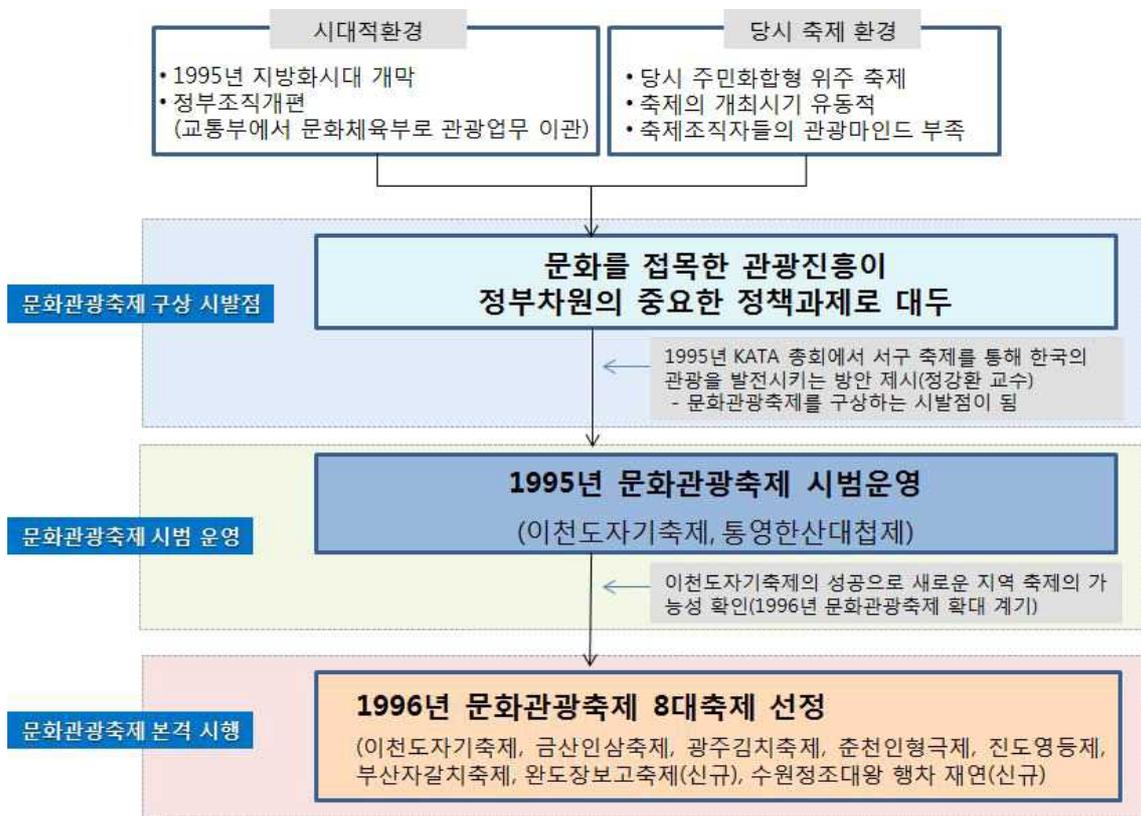
○ 지역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하거나 축제를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각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도시의 특성이나 문화를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됨
- 대부분의 문화 인프라와 관광 행사들이 중앙정부 주도로 서울에서 개최되었기에, 각 지자체들은 문화 및 관광 인프라의 도움 없이 지역의 관광 진흥을 꾀하는 방안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 그 결과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지역 축제는 한 해 약 350여개가 개최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나, 대부분 주민화합형으로 종합문화행사 수준의 축제들이 다수였음

1)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부 인용.

○ 1995년 문체부는 문화와 소프트웨어의 접목방안의 일환으로 축제라는 문화현상을 소프트웨어로 활용하여 관광 진흥을 검토하기 시작

- 1994년 중앙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관광업무가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며,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관광 진흥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제 대두
- 1995년 문화체육부는 지역 축제를 통하여 관광 진흥을 수행하고자, 축제를 관광에 접목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관광축제가 태동하였음



[그림 II -2] 문화관광축제의 탄생모델과 초기지원 축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4

○ 문화관광축제 사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시범축제로 이천도자기축제와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선정·지원하였으며, 두 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정책사업으로 추진 시작

- 1995년 문화체육부는 지역 축제를 통하여 관광 진흥을 수행하고자, 축제를 관광에 접목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관광축제가 태동하였음

- 1994년까지 이천도자기축제는 소규모 형태의 지역 축제 수준이었으나, 1995년 문화관광 시범축제로 지정된 후 이천도자기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광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큰 변화를 통하여, 25만명의 방문객 유치, 약 12억 원의 도자기 판매 등의 성공을 거둠

○ 문화관광축제는 다음과 같은 육성방법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표 II -5] 문화관광축제 육성방법

구분	내용
거점육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지역 축제 중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성장잠재력이 큰 축제를 선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전통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국제적 축제로 육성함으로써 그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li> </ul>
관광객 중심의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지역 축제가 주민을 목표시장으로 한 내수형의 주민화합축제였다면 새로운 문화관광축제는 외지관광객을 겨냥하여 만드는 수출용 축제로 기획하도록 지도</li> </ul>
국내·외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를 대폭 강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 해외 홍보가 필수적이므로 홍보할 시간을 벌기 위해 당년도 말에 이듬해 문화관광축제를 선정</li> </ul>
마케팅기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화된 주제의 선정부터 주제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 잠재방문객에게 관광 유인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슬로건(Slogan) 및 축제의 개념이 담긴 심볼(Symbol) 개발, 축제의 재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전개, 표적시장의 설정, 표적시장에 대한 다양한 홍보, 축제방문객 조사를 통한 과학적·객관적 평가 등을 추진</li> </ul>
축제에 대한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부는 1996년에 4억 원의 한국관광공사 예산을 8대 축제에 지원하고, 더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추가예산을 편성·지원토록 유도하고 그밖에 민간기업의 협찬을 유치하도록 측면 지원</li> </ul>
수요자 지향형 조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사의 짜임새, 편의 시설, 이용 편리성, 볼거리 다양성, 주차의 편리성, 음식의 가격 등 5개 항목에 걸쳐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li> </ul>
등급제에 의한 경쟁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부터 실시된 문화관광축제 평가제도를 통하여 축제 전문가들의 현장참관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문화관광축제부터 등급별 차등 지원</li> </ul>
대한민국 대표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를 육성하고자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세계적 성장 가능성이 큰 축제를 대한민국대표축제로 선정하여 육성</li> </ul>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 2)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 문화관광축제는 방문객의 수, 소비지출의 증가 및 만족도 상승과 같은 외형적인 지표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의 체질개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표 II -6]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구분	주요 성과	
1.	방문객 수의 급증	
2.	방문객 소비지출의 증가	
3.	방문객 만족도 상승	
4.	문화관광축제의 발전 및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형 프로그램의 확대</li> <li>• 새로운 브랜드 창출</li> <li>• 지역 축제의 비효율 개선</li> <li>• 비수기 활성화 및 관광트렌드 선도</li> <li>• 지역관광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 수행</li> <li>• 축제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li> <li>•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li> <li>• 문화관광축제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li> </ul>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 문화관광축제 이전의 축제는 대체로 초청가수 공연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된 관람형 축제였으나, 문화관광축제를 통하여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를 달성([표 II-7] 참조)
- 문화관광축제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 또는 도시 브랜드 창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고비용의 장기적 플랜인 도시개발사업에 비하여 문화관광축제사업은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
- 문화관광축제 시행 이전 지역 축제들은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나, 문화관광축제는 외지인을 유치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존의 문제점(관변단체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지원, 매년 똑같은 노래자랑, 형식적인 개막식과 지루한 축사, 치사 등)이 대부분 사라짐(문화체육관광부, 2018b)
- 문화관광축제를 통하여 지역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축제를

통한 관광 매력성을 제고시킴

- 문화관광축제 제도가 정착되며 축제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평가 및 선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관광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임([표 II-8] 참조)
- 축제를 일종의 관광상품으로 간주하고, 기획부터 홍보,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편의시설, 수용시설, 판매시설 등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심리적 관광상품 축제 개발에 기여
- 문화관광축제로 인하여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같은 문화창달효과, 국민 여가선용기회의 확대, 지역주민 자부심 함양 등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효과를 달성

[표 II -7] 지방축제의 비효율 개선

구분	문화관광축제 이전	문화관광축제 이후
표적시장	지역주민 중심	관광객 중심
개최시기	5월, 9~10월 개최시기 집중	비수기 극복을 위한 개최로 4계절형 축제로 분산
개막식	의례행사 중심의 개막식(축사, 치사 위주)	의전행사 축소, 주제반영형 개막식
프로그램	연예인 공연 등의 예산 소모성 프로그램	주제반영, 체험형, 유료형 프로그램
축제예산	축제예산 1/N로 나누기, 소형예산	중형예산투입, 중장기적인 예산투입
축제조직	관조직, 민간조직(비전문가)	민관공동운영 조직, 축제사무국, 재단 운영
개최장소	운동장, 하천변 등 운영편의성 중심	공원(주제반영장소), 일부 다목적 공간
축제홍보	지역중심 홍보	광역적 홍보, 해외홍보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표 II -8] 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 창출의 예

구분	주요 성과	
함평나비대축제	이전	• 낙후된 농촌 소도시 이미지
	이후	• 나비의 도시 ‘함평군’, 교과서에 나비의 도시로 소개 • 친환경 농업지역이라는 이미지
화천산천어축제	이전	• 3개 사단 주둔 지역 • 전체면적의 86% 산
	이후	• 산천어는 화천이라는 브랜드, 국내 대표적인 겨울관광지로 인식 • 세계축제도시 선정
진주남강유등축제	이전	• 개천예술제, 진주성 싸움, 축석루 유명
	이후	• 강위에 띄운 등이라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야간형 소재로 부각
안동국제탈출페스티벌	이전	•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
	이후	• 안동탈춤이라는 브랜드 탄생 •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김제지평선축제	이전	• 호남평야, 삼한시대부터 농경문화의 중심지
	이후	• 지평선 브랜드 탄생 • 지역상가 및 업소의 명칭에 지평선 약국 등으로 명칭이 활용되는 성과
추억의7080총장축제	이전	• 동구거리의 대표 이미지 ‘쇼핑 패션 젊음’
	이후	• 7080이란 브랜드를 국내 첫 사용 • 7080년대 추억을 특화마케팅
무주반딧불이축제	이전	• 전라도의 오지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이후	• 반딧불이라는 대표 브랜드 탄생 • 청정농산물과 유기농의 상징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 2019년 현재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총 41개이며, 해당 축제들은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

- 글로벌 육성축제는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종합한 명예축제를 의미하며, 해당 축제의 경우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음
- 이외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축제 41개는 다음 [표 II-10]과 같이 선정되었음

[표 II -9]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구분	축제명
글로벌 육성 축제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표 축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차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최우수 축제	담양대나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광주추억의총장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제주들불축제
우수 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화은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강진청자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수원화성문화제, 춘천마임축제, 임실N치즈축제, 시흥갯골축제
유망 축제	순창장류축제, 음성품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고창모양성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괴산고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논산강경절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영덕대게축제, 횡성한우축제, 강릉커피축제, 평창송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12.31.).

### 3. 지역 축제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sup>2)</sup>

#### 1) 경제적 특성

- 축제산업의 소비자 지출규모는 애니메이션, 만화, 콘텐츠 산업보다 크며 영상화 산업의 매출 규모와 비슷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큼
  - 경제적 파급효과란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의미하는데, 문화관광 축제 1개당 경제적 효과는 1997년 18억 원에서 2008년 267억 원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현재는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
  -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을 통하여 산정하는데 이는 방문객이 축제를 방문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의 합계를 방문객 1인당 지출금액으로 산출하는 액수로, 여기에 방문객 1인의 동행 인원수와 지역 내외부에서 방문여부를 파악(지역민의 경우, 숙박/교통/식사 등의 항목은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함(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 강원발전연구원(2001), 강원도 문화관광축제 실태분석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일부 인용

○ 지역 축제는 축제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 판매, 재고품 정리, 지역의 특화산업 이미지 강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

- 지역 축제는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낳기에,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지역 축제를 의도적으로 새롭게 개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멀티미디어 산업육성을 시정목표로 내걸은 춘천시가 1997년에 '춘천만화축제'를 새롭게 개최한 것이나,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
- 지역 축제와 지역 농수특산물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판매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일례로, 강경발효젓갈축제는 1997년 젓갈 매출이 2억 2천만 원에서 2011년 약 3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젓갈 상점은 1997년 29개에서 약 200여 개로 증가한 바 있음
  - 금산인삼축제는 인삼 매출이 1997년 49억 원에서 인삼 엑스포가 개최된 2006년에는 3,000억 원까지 증가하여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함

○ 지역 축제는 방문객의 지출비용 상승을 통한 수익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능력 강화에 기여

- 축제는 이벤트 기획사, 전문감독, 공연예술가, 이벤트 물품대여, 이벤트 시설업 등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 축제의 고용영향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축제이벤트 예산 및 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2011년 기준 3만 6,300명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지역 축제 중 사업비 4억 원 이상인 174개 행사를 표본추출(74개 축제 방문객 1,870만 6,000명의 총 지출액 5,281억 8,800만원),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 지출 및 축제 관람객의 평균 소비지출액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산출
- 지역 축제 개최에 의한 고용효과의 특징으로는 공공부문의 사업비 지출에 의한 고용효과에 비해 축제참가자의 자발적 소비지출에 의한 간접적 고용효과가 훨씬 큰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여타 정부예산 지출사업에 비해 고용친화적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 할 수 있음

## 2) 사회적 특성

○ 지역 축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 정체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짐

- 지역 축제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행정적 단위를 상징적, 문화적으로 재현하여 표출해내는 공간으로서 '외부인'과 '우리'를 상상적으로 구분해내는 경계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는 행정적 단위가 같은 지역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행정적 단위에 따른 지역 정체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공간으로 묶고 지역예의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

-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가와 관계없이 지역 축제는 지역공동체라는 문화적·상징적·도덕적 경계를 만들어 내고 확인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의미를 가진 사회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귀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공동체의 해체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계층 간의 이해와 결속을 다질 수 있으며, 지역 축제를 통해 축적된 공동체의 응집력과 추진력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의 역할 수행

- 각종 축제 및 이벤트의 개최는 해외를 포함한 지역 외부로부터 사람, 물자 및 정보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외부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 ○ 지역의 특정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 기존의 지역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 지방화 시대에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매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 축제를 통하여, 차별화된 지역이미지의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 그 지역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각인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러한 차별적 내용을 관광 등을 통해 소비하도록 유인할 수 있음
- 지역에 뿌리내린 지역색 넘치는 생활문화의 부흥과 창조는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지역의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는 지역의 문화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며,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는 훌륭한 미디어로 작용

### 3) 문화적 특성

- 지역 축제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연출하게 됨으로써 문화를 재창조하는데 기여
  - 지역 축제는 지역적 공간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축제의 고유한 테마가 무엇이든 간에 개최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고유성을 연출하게 되며, 그 결과 행사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일상적인 문화적 특성을 재발견하고 재창조해냄으로써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 지역 축제를 통하여 지역에 내제된 문화적 잠재력을 현재화하고 이를 발전·육성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창조력을 향상하고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
  - 지역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 생활수준 향상, 다양한 문화행위 욕구 등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활동, 모임 등 적극적인 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
  
- 지역 축제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는 문화보전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
  - 성황제와 별신굿과 같은 전통적인 민속제의, 가면극·농악·민요·탈춤 등의 민속예술, 개인적·집단적인 민속놀이나 세시풍속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재연되고 전승됨으로써 지역 축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
  - 지역 축제의 관광자원화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축제는 물론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지역의 관광매력도를 높이고 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하려 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
  
- 지역문화예술인의 지역,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여 문화교류를 활성화
  - 일례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문화이벤트는 안동이나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해외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문화교류의 장이 되

고 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충격은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4. 지역 축제의 정책적 특성

- 지역 축제 관련 정책은 지방분권화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 정책 의사결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지방 분권화는 본질적으로 국가 내에서 권력의 지리적 배분을 의미하고, 정부의 계층 구조상에서 권력의 지방화를 의미함
  - 지역 축제 관련 정책은 지역주민·자치단체·지역관광사업자·지역전문가 등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망라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기에,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많은 의의를 가짐(문화체육관광부, 201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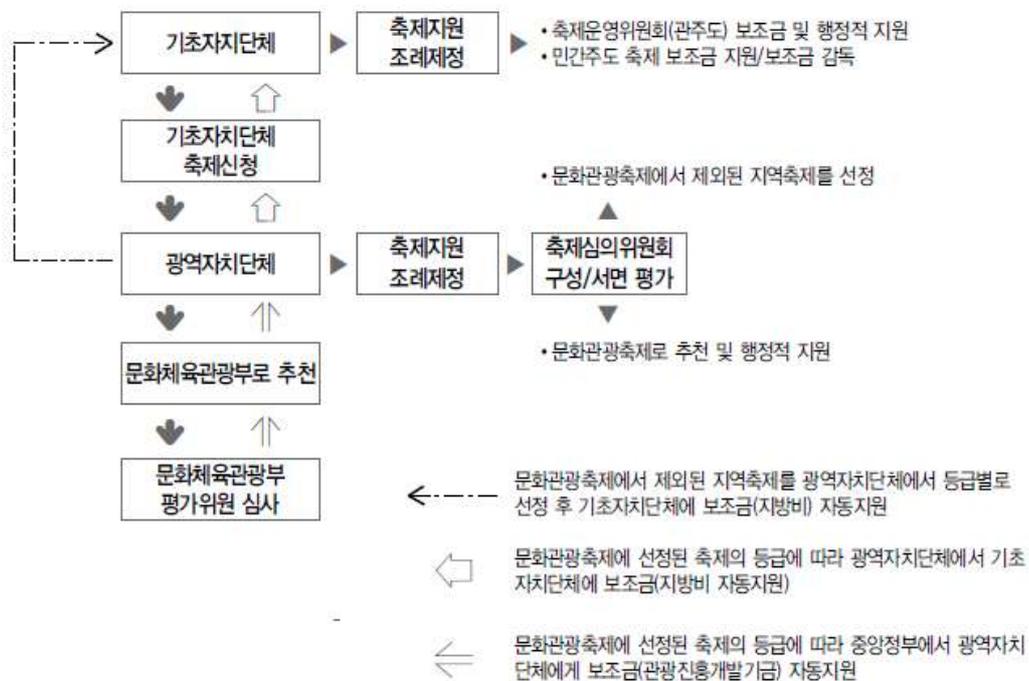
[표 II -10] 축제 지원정책의 유형

유형	내용	효과
직접적인 지원정책	예산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운영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간접적인 지원정책	홍보, 마케팅, 평가, 컨설팅, 조직, 인력 지원	축제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음

출처: 한국관광공사(2013).

- 국내 축제 지원정책의 유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정책과 홍보·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정책으로 구분됨
  - 주로 관 주도로 축제가 운영되어 예산지원과 같은 직접지원 형태가 대부분임
-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제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대표 축제정책으로 자리매김함
  - 1995년 문화관광축제 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지역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하여,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 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음

- 1999년부터는 축제의 품질향상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 평가제도의 시행은 지역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이끌어내 축제의 서비스, 프로그램, 인프라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평가는 각 특별시·광역시에서 3개 이내, 각 광역 도에서 8개 이내의 축제를 추천하면 관광·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 등 콘텐츠,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식임



[그림 II -3] 지방정부의 단계별 지역 축제 지원정책

출처: 한국관광공사(2013).

- 지방정부는 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 조례를 근거로 축제를 지원하고 있음
  - 축제 육성과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축제 지원목적, 정의, 예산지원,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축제 평가 등으로 구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에 추천할 축제를 선정하고 행정을 지원하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지 않은 축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문화관광축제와 동일한 선정방식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국비)과 광역권 지방정부의 지방비와 매칭하여 선정된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독함
-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지역 축제를 평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평가를 통하여 감독함

## 5. 지역 문화관광축제 육성 정책의 개선방향

### 1) 현 정책의 문제점

○ 현 지역 축제와 관련된 정책은 차별화된 지역 축제 지원보다는 평가지표에 맞추어진 평가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

- 축제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맞는 예산 지원을 수행하고 있기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지역문화축제 지원보다는 평가지표에 맞추어진 전략적 축제 지원의 측면이 존재
- 이에, 평가중심 정책방향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축제보다는 평가시스템에 맞추어 특색 없는 축제로 발전되는 경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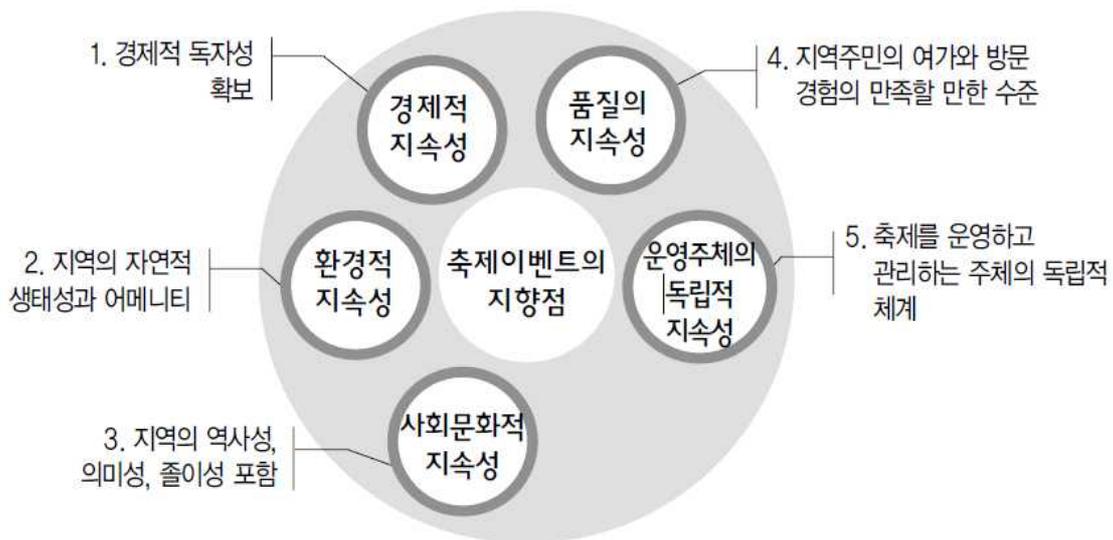
○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와 더불어, 평가중심에서 진흥중심으로 정책방향 시프트 필요한 시점(오순환·정강환, 2014)

- 평가방법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축제 관광객 공식집계와 소비자 평가 등 문화관광축제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가중심의 정책방향을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하고, 축제별 컨설팅과 지역주민을 축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지원, 축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축하는 등 진흥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해야 함

### 2) 정책적 지향성

○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품질, 운영 주체의 독립적 지속성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경제적 독자성: 축제가 중앙과 지자체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행정적·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경제적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 상인에 의한 축제 자원 모금, 스폰서십을 통한 자원 확보, 기념품과 축제상품 판매로 축제 운영수익 마련 등이 필요
- 환경적 지속성: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발생 및 자연 생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여 최소화
- 사회문화적 지속성: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 의미성, 놀이성을 반영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 품질의 지속성: 대동성, 놀이성, 장소성, 신성성, 일탈성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기획
- 운영주체의 독립적 지속성: 축제 자원에서 축제의 독자적 자원 확충 비율 확대를 통해 축제의 지속성과 독립성을 확보



[그림 II -4] 축제의 지향점

출처: 한국관광공사(2013).

○ 이를 위한 세부 전략방안 및 추진내용은 [표 II-11]을 참고할 수 있음

[표 II-11] 지역 축제의 지원정책 방향

핵심 전략	전략 방안	세부 추진 내용
경제적 독자성	축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간접지원방식 채택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교육 지원
		조직 및 인력 지원
	독립적 축제 예산 확충 방안	스폰서십 유치
		축제 자체 상품 판매 및 입장료 수입
		축제 발전기금 조성
	대표축제 졸업제의 효율성 고려	대표축제 간접 지원방식 채택
		대표축제 졸업조건 기준 개발
		대표축제의 '명예축제' 화
환경적 지속성	탄소절감형 축제운동을 위한 관심과 노력	생태적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 설정
		생태적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축제장 운영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축제운영과 환경개선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축제 인프라의 사후 활용방안 제시
사회문화적 지속성	축제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체계화	유형별 축제 운영 및 관리 교육 실시
		교육 및 토론프로그램 진행
	지역문화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축제 활성화	전통문화자원 활용센터(가칭) 건립
		지역문화자원 활용 축제 인센티브제
품질의 지속성	축제 평가 시스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축제 평가 독립 법인 설립
		축제별 성격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축제 평가 위원 위촉
	효율적인 국제마케팅 지원	광역권 내 축제 네트워크의 활용
		지원을 위한 정부산하 조직 구성
운영주체의 독립적 지속성	축제 조직 운영의 독립성 보장	축제 전담 전문위원 제도 시범 실시
		혼합주도형 축제조직 운영
	정부 단위별 축제 지원 시스템 구축	축제 지원의 정부 부처 단위별 역할 분담
		축제별 지원 주체의 다양화

출처: 한국관광공사(2013).

### Ⅲ. 충남 지역 축제 현황 및 운영실태

#### 1. 충남 지역 축제 현황

- 충남을 비롯한 지역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의 질,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축제를 활발히 육성하고 있음
  - 충남은 최근 지역 축제의 세계화, 충남 문화요소 발굴 등의 사업을 제시하며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향상을 추진 중임(김경태, 2010)
  
- 2019년 현재 충남은 92개의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 [표 Ⅲ-1]과 같이, 충남은 2019년 현재 92개의 지역 축제를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 Ⅲ-2]와 같음

[표 Ⅲ-1] 2019 지역 축제 개최 계획(단위: 개)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4	93	44	25	32	8	15	20	2	105	68	49	92	50	107	68	66	40

[표 Ⅲ-2] 2019 충남 지역 축제 현황

연번	축제명	연번	축제명	연번	축제명
1	천안흥터령춤축제	32	신정호 별빛축제	63	2019 금강여울축제
2	천안예술제	33	도고 코미디 페스트	64	2019 비단고을 산꽃축제
3	입장거봉포도축제	34	은행나무길 축제	65	제12회 남일면홍도화축제
4	천안호두축제	35	짚풀문화제	66	제17회 부여서동연꽃축제
5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	36	해미천 벚꽃축제	67	부소산 봄 축제
6	천안춤영화제	37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	68	동백꽃·주꾸미 축제
7	거울공주 군밤축제	38	류방택 별축제	69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8	백제 어울마당	39	팔봉산 감자축제	70	장항항 수산물 꿀갑 축제
9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40	서산6쪽 마늘축제	71	한산모시문화제

10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41	삼길포우럭축제	72	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11	계룡산 벚꽃축제	42	서산빨낙지먹물축제	73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12	계룡산 산신제	43	서산어리굴젓축제	74	해랑들랑 어울제
13	마곡사 신록축제	44	서산해미읍성축제	75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14	갑사황매화축제	45	2019 철새기행전	76	칠갑장승문화축제
15	공주항공축제	46	서산국화축제	77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16	백제문화제(공주)	47	강경젓갈추제	78	홍성역사인물축제
17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48	논산딸기축제	79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18	주산봄꽃축제	49	연산대추축제	80	홍성남당항대하축제
19	대천항 수산물축제	50	양촌곶감축제	81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20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축제	51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82	제46회 윤봉길평화축제
21	보령머드축제	52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	83	의좋은 형제축제
22	무창포해변예술제	53	순성매화벚꽃축제	84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23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54	장고항실치축제	85	제16회 예산황토 사과축제
24	보령예술제	55	먼천 진달래 민속축제	86	제14회 태안 문화제
25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56	한진바지락축제	87	제10회 몽산포항 주꾸미&수산물 축제
26	보령 김 축제	57	버그내연호문화축제	88	제20회 안면도 백사장 대하 축제
27	청라은행마을축제	58	삼교호조개구이축제	89	이원면 가재산 벚꽃길
28	제15회 온새미로축제	59	심훈상록문화제	90	태안 툼립 축제
29	천북굴축제	60	남이흥장군문화제	91	태안 수선화 축제
30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61	왜목해돋이축제	92	백제문화제(부여)
31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62	제38회 금산인삼축제		

○ 92개의 축제 중 2019년 1개의 축제가 글로벌 육성축제로, 4개의 축제가 문화관광 축제(유망축제)로 선정되었음

- 보령머드축제는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한 명예축제 즉, 글로벌 육성 축제가 되었으며, 논산강경젓갈축제과 부여서동연꽃축제(2018년 우수축제에서 하락), 서산해미읍성축제와 한산모시문화제(2018년 등급 유지) 등 4개의 축제가 선정

[표 III-3] 2019년도 충남 문화관광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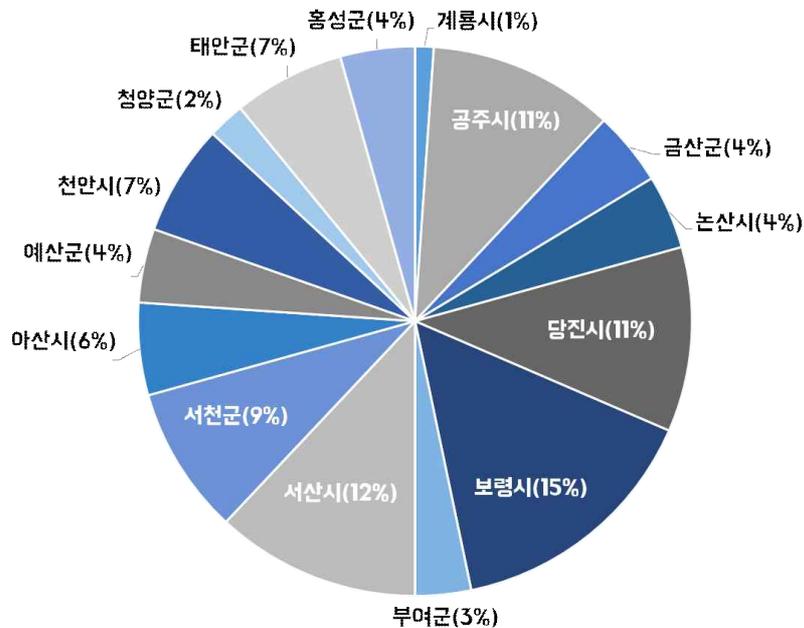
구분	축제명
글로벌 육성 축제	보령머드축제
유망 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한산모시문화제

## 2. 충남 지역 축제 운영실태 상세

### 1) 지역별 현황

○ 충남 지역 축제의 개최지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이 보령시, 서산시, 당진 및 공주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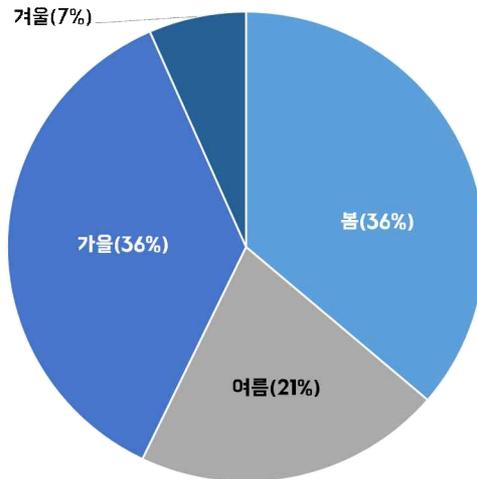
- 천안시 6개(7%), 아산시 5개(6%), 공주시 10개(11%), 보령시 14개(15%), 당진시 10개(11%), 서산시 11개(12%), 논산시 4개(4%), 계룡시 1개(1%), 금산군 4개(4%), 부여군 2개(3%), 서천군 8개(9%), 청양군 2개(2%), 홍성군 4개(4%), 예산군 4개(4%), 태안군 6개(7%) 개 개최되었으며,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 당진시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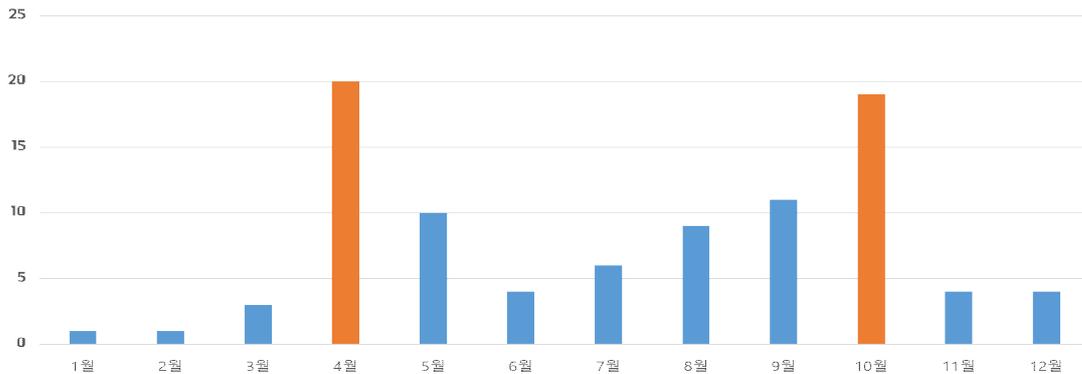
[그림 Ⅲ-1] 충남 지역 축제 지역별 개최 현황

### 2) 계절 · 시기

- 계절별로 충남 지역 축제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축제가 봄(33개, 36%)과 가을(33개, 36%)에 집중되어 있어 있으며, 특히 4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음
- 봄(3월~5월)에 개최되는 축제 33개(36%), 여름(6월~8월)에 개최되는 축제 19개(21%), 가을(9월~11월)에 개최되는 축제 33개(36%), 겨울(12월~2월)에 개최되는 축제가 6개(7%)임



[그림 Ⅲ-2] 충남 지역 축제 계절별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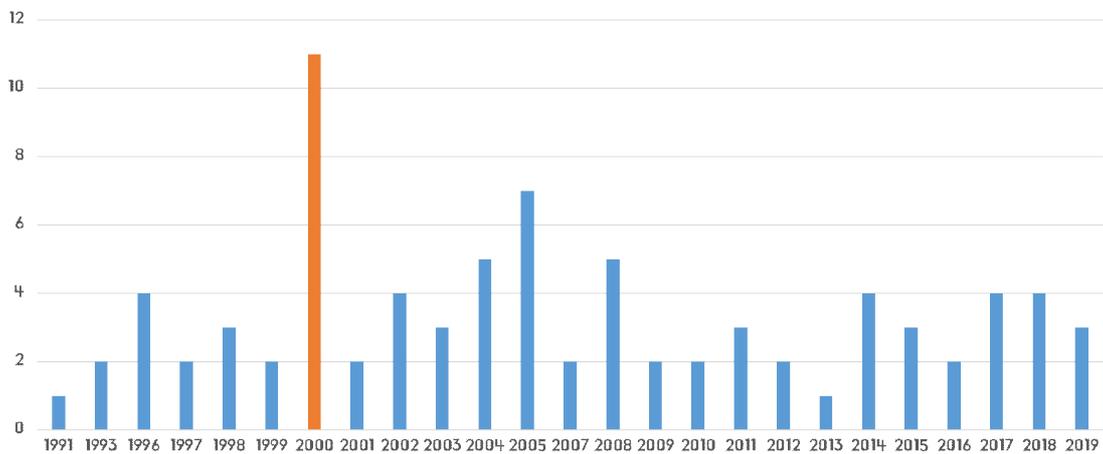
[그림 Ⅲ-3] 충남 지역 축제 월별 개최 현황

- 개최 시작 월·일을 기준으로 월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1월 1개, 2월 1개, 3월 3개, 4월 20개, 5월 10개, 6월 4개, 7월 6개, 8월 9개, 9월 10개, 10월 19개, 11월 4개, 12월 4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3) 축제 연혁

○ 충남 지역 축제 중 가장 오래된 축제는 백제문화제(1995년 최초개최)이며, 2000년대 개최된 축제들이 다수를 차지(32개)하고 있음

- 1950년대에 개최된 축제는 1개, 1960년대에 개최된 축제 1개, 1970년대 개최된 축제 2개, 1980년대 개최된 축제 4개, 1990년대 개최된 축제 25개, 2000년대 개최된 축제 32개, 2010년대 개최된 축제는 26개임
- 다수의 축제가 1990년대 이후에 개최됨에 따라 해당 연도별로 개최 수를 살펴보면 [그림 III-4]와 같으며, 2000년에 가장 많이 축제(11개)가 개최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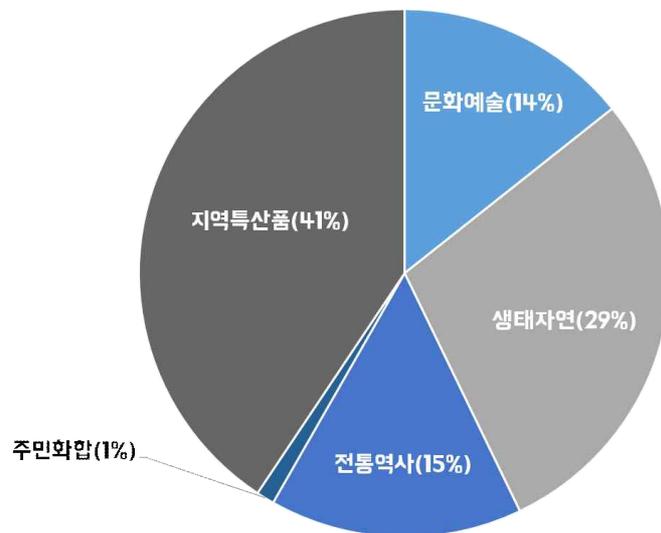
[그림 III-4] 충남 지역 축제 최초개최 연별 현황

#### 4) 축제 소재

○ 충남 지역 축제는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한 축제(36개, 40%)와 생태자연을 소재로 한 축제(26개, 29%)가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음

- 문화 및 예술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축제 13개(14%),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을 소재로 한 생태자연 축제 26개(29%), 지역 전통문화나 역사적 유물·사실 및 인물을 소재로 한 전통역사 축제 14개(16%),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한 지역특산품 축제 37개(41%), 지역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주민화합 축제 1개(1%)가 개최됨

· 축제 소재의 분류는 각 축제 주최기관의 자기기입 내역을 기반으로 정리한 후, 일부 오류가 있는 분류 내역에 한하여 재분류를 수행하였음



[그림 III-5] 충남 지역 축제 축제 소재별 현황

○ 축제 소재별 각 축제 명을 정리하면 [표 Ⅲ-4]와 같음

[표 Ⅲ-4] 충남 지역 축제 소재별 개최 내역

소재	축제명(소재)	비고
문화 예술	천안흥타령춤축제(춤), 천안춤영화제(춤·영화), 천안예술제(예술), 보령예술제(예술), 무창포해변예술제(예술), 춘장대해수욕장여름문화예술축제(가요제), 도고코미디페스트(코미디), 질풍문화제(민속마을), 공주항공축제(항공), 계룡세계군문화제(군문화), 심훈상록문화제(심훈), 마곡사신록축제(신록), 보령머드축제(머드)	13개
생태 자연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벚꽃), 계룡산벚꽃축제(벚꽃), 해미천벚꽃축제(벚꽃), 순선매화벚꽃축제(벚꽃), 이원면가재산벚꽃축제(벚꽃), 감사항매화축제(황매화), 주산봄꽃축제(봄꽃), 부소산봄축제(봄꽃), 서산국화축제(국화), 버그내연호문화축제(연꽃), 부여서동연꽃축제(연꽃), 비단고을산꽃축제(산꽃), 남일면홍도화축제(홍도화), 태안수선화축제(수선화), 태안튤립축제(튤립),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바닷길),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바다), 해랑들랑어울제(해양생물 및 생태계), 금강어울축제(어울), 왜목해동이축제(해돋이), 류방택별축제(천문), 신정호별빛축제(별), 철새기행전(철새), 서천군산금강철새여행(철새), 은행나무길축제(은행나무), 청라은행마을축제(은행)	26개
전통 역사	백제어울마당(역사), 백제문화제(역사), 태안문화제(역사), 서안해미읍성축제(역사),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역사), 계룡산산신제(역사),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민속놀이), 먼천진달래민속축제(민속놀이),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수문병교대식), 칠갑장승문화축제(장승), 남이흥장군문화제(역사인물), 홍성역사인물축제(역사인물), 윤봉길평화축제(역사인물),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역사인물)	14개
지역 특산물	온새미로축제(농산물), 입장거봉포도축제(포도), 논산딸기축제(딸기), 예산황토사과축제(사과), 금산인삼축제(인삼)팔봉산감자축제(감자), 양촌곶감축제(곶감), 천안호두축제(호두), 겨울공주군밤축제(밤), 연산대추축제(대추), 청양고추구기자축제(고추·구기자), 서산6쪽마을축제(마늘), 대천항수산물축제(수산물), 지곡왕산포서산갯마을축제(수산물), 삼길포우럭축제(우럭), 자연산광어·도미축제(광어·도미), 무창포쭈꾸미·도다리축제(쭈꾸미·도다리), 동백꽃·쭈꾸미축제(쭈꾸미), 몽산포항쭈꾸미·수산물축제(쭈꾸미), 서산빨낙지먹물축제(낙지), 장항항수산물꿀감축제(꿀두기·감오징어), 장고항실치축제(실치), 무창포대하·전어축제(대하·전어),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대하), 홍성남당항대하축제(대하), 홍원항전어·꽃게축제(전어·꽃게),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새조개), 대천해수욕장조개국이축제(조개), 삽교호조개구이축제(조개), 천북굴축제(굴), 한진바지락축제(바지락), 서산어리굴젓축제(젓갈), 강경젓갈축제(젓갈),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젓갈·김), 보령김축제(김), 한산모시문화제(모시), 예산장터삼국축제(국밥)	37개
주민 화합	의좋은형제축제	1개

- 충남 지역의 주요 특산품을 소재로 해당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 축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기에, 그 세부 소재를 살펴보면 [표 III-5]와 같음
  - 농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 12개, 수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 23개,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 2개가 개최되었음

[표 III-5] 충남의 지역특산품 소재 지역 축제 개최 내역

소재	축제명(소재)	갯수
농산물	온새미로축제(농산물), 입장거봉포도축제(포도), 논산딸기축제(딸기), 예산황토사과축제(사과), 금산인삼축제(인삼)팔봉산감자축제(감자), 양촌곶감축제(곶감), 천안호두축제(호두), 겨울공주군밤축제(밤), 연산대추축제(대추), 청양고추구기자축제(고추·구기자), 서산6쪽마을축제(마늘)	12개
수산물	대천항수산물축제(수산물), 지곡왕산포서산갯마을축제(수산물), 삼길포우럭축제(우럭), 자연산광어·도미축제(광어·도미), 무창포쭈꾸미·도다리축제(쭈꾸미·도다리), 동백꽃·쭈꾸미축제(쭈꾸미), 몽산포항쭈꾸미·수산물축제(쭈꾸미), 서산빨낙지먹물축제(낙지), 장항항수산물꿀갑축제(꿀두기·갑오징어), 장고항실치축제(실치), 무창포대하·전어축제(대하·전어),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대하), 홍성남당항대하축제(대하), 홍원항전어·꽃게축제(전어·꽃게),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새조개), 대천해수욕장조개국이축제(조개), 삽교호조개구이축제(조개), 천북굴축제(굴), 한진바지락축제(바지락), 서산어리굴젓축제(젓갈), 강경젓갈축제(젓갈),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젓갈·김), 보령김축제(김)	23개
특산물	한산모시문화제(모시), 예산장터삼국축제(국밥)	2개

- 충남의 생태자연 소재 지역 축제의 세부 소재는 꽃, 바다, 강, 해·별, 새, 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꽃과 관련된 축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꽃을 소재로 한 축제는 15개이며 그 중 벚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5개로 가장 많았음
  - 바다, 해·별을 소재로 한 축제가 각각 3개, 새, 은행을 소재로한 축제가 각각 2개, 강을 소재로 한 축제가 1개로 나타남([표 III-6] 참조)

[표 III-6] 충남의 생태자연 소재 지역 축제 개최 내역

소재	축제명(소재)	비고
꽃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벚꽃), 계룡산벚꽃추개(벚꽃), 해미천벚꽃축제(벚꽃), 순선매화벚꽃축제(벚꽃), 이원면가재산벚꽃축제(벚꽃), 감사항매화축제(항매화), 주산봄꽃축제(봄꽃), 부소산봄꽃축제(봄꽃), 서산국화축제(국화), 버그내연호문화축제(연꽃), 부여서동연꽃축제(연꽃), 비단고을산꽃축제(산꽃), 남일면홍도화축제(홍도화), 태안수선화축제(수선화), 태안튤립축제(튤립)	15개
바다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바닷길), 대전거울바다사랑축제(바다), 해랑들랑어울제(해양생물 및 생태계)	3개
강	금강어울축제(어울)	1개
해·별	왜목해동이축제(해돋이), 류방택별축제(천문), 신정호별빛축제(별)	3개
새	철새기행전(철새), 서천군산금강철새여행(철새)	2개
은행	은행나무길축제(은행나무), 청라은행마을축제(은행)	2개

## 5) 축제 예산

○ 충남 지역 축제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활용하는 축제는 백제문화제, 보령머드축제, 천안흥타령축제, 금산인삼축제 순이었으며, 다수 축제가 공공재원에 의존

- 예산 내역이 미정 혹은 미공개인 5개의 축제를 제외하고, 86개의 축제 중 57개(66%)의 축제가 정부 및 지자체(국비, 시·도비, 구·군비 지원)의 단일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9개의 축제가 2개 이상의 정부 및 지자체(국비 및 시도비, 국비 및 구군비, 시도비 및 구군비 지원)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과 더불어 자부담 혹은 기타 예산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역 축제는 20개로, 이들 다수는 시·도비와 기타, 구·군비와 기타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표 III-7] 충남 지역 축제 예산 현황

축제명	2019년 축제예산	국비	시·도비	구·군비	기타
천안흥타령춤축제	2,350	-	2,350	-	-
천안예술제	200	-	200	-	-
입장거봉포도축제	90	-	35	-	55
천안호두축제	55	-	-	55	-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	80	-	-	56	24
천안춤영화제	100	-	100	-	-
겨울공주군밤축제	250	-	-	250	-
백제어울마당	100	-	50	50	-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200	-	-	200	-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	720	-	100	620	-
계룡산벚꽃축제	20	-	-	20	-
계룡산산신제	30	-	7.5	22.5	-
마곡사신록축제	20	-	-	20	-
갑사향매화축제	20	-	-	20	-
공주향공축제	20	-	-	20	-
백제문화제	3,200	-	100	3,000	100
무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41	-	20	-	21
주산봄꽃축제	25	-	-	25	-
대전향수산물축제	100	-	50	-	10
대전해수육장조개구이축제	50	-	-	50	-
보령머드축제	2,470	-	-	2,470	-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150	-	-	150	-
보령예술제	70	-	70	-	-
무창포대하·전어축제	30	-	15	-	15
보령김축제	210	-	200	-	10
청라은행마을축제	16	-	-	16	-
은새미로축제	10	-	10	-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700	-	-	700	-
신정호별빛축제	150	-	-	150	-
도고코미디페스트	120	-	-	120	-
은행나무길축제	150	-	-	150	-
짚풀문화제	120	-	7.5	113	-
해미천벚꽃축제	50	-	50	-	-
지곡왕산포서산갯마을축제	35	-	-	25	10
류방택별축제	75	-	75	-	-
팔봉산 감자축제	86	-	80	-	6
서산6쪽마늘축제	150	-	150	-	-

삼길포우럭축제	35	-	25	-	10
서산빨낙지머물축제	35	-	25	-	10
서산어리굴젓축제	35	-	25	-	10
서산해미읍성축제	900	70	830	-	-
철새기행전	110	40	70	-	-
서산국화축제	100	-	100	-	-
강경젓갈축제	845	70	35	690	50
논산딸기축제	800	-	-	800	-
연산대추축제	88	-	-	80	8
양촌곶감축제	100	-	-	80	20
계룡세계군문화축제	2,000	650	-	1,350	-
기지사줄다리기민속축제	579	-	100	479	-
순성매화벚꽃축제	35	-	-	35	-
장고항실치축제	20	-	-	20	-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30	-	-	30	-
한진바지락축제	20	-	-	20	-
버그내연호문화축제	95	-	-	95	-
삼교호조개구이축제	60	-	30	-	30
심훈상록문화제	140	-	-	140	-
남이흥장군문화제	15	-	-	15	-
왜목해돋이축제	55	-	-	-	55
금산인삼축제	2,150	-	-	2,150	-
금강여울축제	70	-	-	70	-
비단고을 산꽃축제	50	-	-	50	-
남일면홍도화축제	10	-	-	10	-
부여서동연꽃축제	1,300	70	35	1,195	-
부소산봄축제	290	-	-	290	-
동백꽃·주꾸미축제	19	-	-	19	-
자연산광어·도미축제	9.5	-	-	9.5	-
장항항수산물곶감축제	50	-	-	20	30
한산모시문화제	1,206	70	35	1,051	50
춘장대해수욕장여름문화예술축제	50	-	-	50	-
홍원항전어·꽃게 축제	9.5	-	-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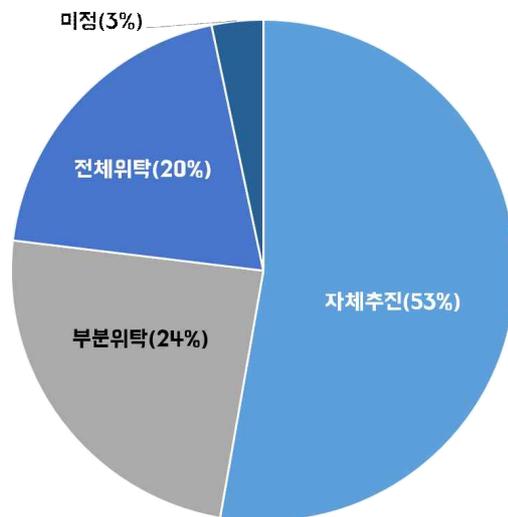
해랑들랑어울제	300	-	-	100	200
서천군산금강철새여행	80	-	-	80	-
칠갑장승문화축제	155	-	-	155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590	-	-	590	-
홍성역사인물축제	500	-	-	500	-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45	-	-	45	-
홍성남당항대하축제	35	-	-	35	-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25	-	-	25	-
운봉길평화축제	250	-	-	250	-
의좋은형제축제	150	-	-	150	-
예산장터삼국축제	140	-	-	140	-
예산황토사과축제	200	-	-	200	-
태안 문화제	150	-	-	150	-
몽산포항주꾸미·수산물 축제	80	-	-	40	40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	80	-	-	40	40
이원면가재산벚꽃길	5	-	-	5	-
천북굴축제	-	-	-	-	-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	-	-	-	-
무창포해변예술제	-	-	-	-	-
태안튕립축제	-	-	-	-	-
태안수선화축제	-	-	-	-	-

## 6) 축제 운영주체

○ 축제 주최 및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자체 추진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48개, 53%), 전체위탁(18개, 20%), 부분위탁(22개, 24%) 하는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 운영방식이 미정인 3개의 축제를 포함하여 총 91개의 축제 운영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추진의 경우가 많으며, 부분위탁 하는 경우 하드웨어나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그림 III-6] 참조)

- 사무국을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축제는 18개이며, 사무국이 없는 축제는 73개임
- 2019년 기준, 충남 지역 축제 중 82개의 축제는 무료로 진행되며, 4개의 축제는 유료, 6개의 축제는 일부유료의 방식으로 운영
  - 유료축제: <보령머드축제>, <2019철새기행전>, <태안수선화축제>, <태안튕립축제>
  - 일부유료축제: <백제문화제(공주)>, <마곡사신록축제>, <무창포쭈꾸미도다리축제>, <류방택별축제>, <팔봉산감자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그림 III-6] 충남 지역 축제 운영방식 관련 현황

### 3. 충남 지역 축제 관련 자치법규 운영 현황

- 충남의 지자체별 축제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남도 조례(제 3915호) 외에도 대다수 지자체가 축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 특히 공주, 금산, 논산, 아산의 경우 관련 조례의 개정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민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표 III-8] 참조)

- 한편 계룡시, 연기군, 천안시는 지역 축제 관련 조례를 미 제정

[표 Ⅲ-8] 충남 지자체별 축제 관련 자치법규 현황

연번	지자체	종류	법규명	제/개정일
1	충남도	조례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4-07-10
2	계룡시	-	(없음)	-
3	공주시	조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2-28
		지침	공주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	2019-02-01
4	금산군	조례	금산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28
		조례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08-16
5	논산시	조례	논산시 강경절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17-06-20
		조례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18-09-20
6	당진시	조례	당진시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8
7	보령시	조례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19-08-20
8	부여군	조례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2018-12-14
9	서산시	조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1-20
10	서천군	조례	서천군 지역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10-21
11	아산시	조례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3-09
		조례	아산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03-15
12	연기군	-	(없음)	-
13	예산군	조례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2009-05-12
14	천안시	-	(없음)	-
15	청양군	조례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18-12-15
16	태안군	조례	태안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05
17	홍성군	조례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05-3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9년 10월 30일.

## 4. 소결 및 시사점

- 충남 지역의 축제는 2019년 기준 92개로 전남(107개), 경기(105개), 서울(93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축제의 대부분은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일각에서는 축제의 폭증, 축제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임(이오, 2001)
  - 이러한 비판적 여론이 부각됨에 따라, 경쟁력 없는 축제의 대폭 정비 및 구조 조정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충남발전연구원, 2010).
  - 이에,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현행 축제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개선하여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축제의 기반을 다져야함
  
- 충남 지역 축제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특산품(특히 수산물)이나 생태자연(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음
  - 충남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봄철의 경우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여름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축제, 가을은 농수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으나, 동일 소재를 활용한 유사 축제의 중복도 존재함
  
- 상대적으로 충남의 전통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는 다소 저조함
  - 충남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연계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나, 지역 축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화성이나 의미를 반영한 축제들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축제의 소재 및 특성이 다소 획일화되어 있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최근 축제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존재함
  - 최근의 지역 축제는 축제별로 참여대상이 뚜렷해지고 있기에, 기존 가족 단위의 참여자와 참가계층을 확대하려는 기획방향이 필요함
  - 재즈, 마임, 락 음악 등 문화예술을 소재로 한 축제의 경우에는 젊은층이 주로 참여하는 반면, 전통이나 역사, 지역특산물, 생태자연을 소재로 한 축제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의 참여자 많음
  - 또한, 기존의 주간 프로그램 중심에서 야간프로그램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

- 축제의 야간프로그램은 체류형 관광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몰입도가 강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여, 결국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야간 하트거리, 야간 EDM 풀파티, 빛 경관조형물 설치 등과 같은 야간 프로그램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재 충남 지역 축제는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 의지하여 있기에 지역 축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보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보호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충남의 대부분의 축제가 국비, 시·도비, 구·군비 단일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
- 자부담 비율이 매우 낮고, 이러한 국비, 시·도비, 구·군비 예산에 의지하는 축제의 예산구조는 축제가 지향하는 바와 축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안정적 재정보호에 대한 노력을 수행해야 함

○ **특히, 안정적 재정보호를 위한 민간 부분의 투자·스폰서쉽, 수익과 관련된 상품 판매, 입장료 수익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해보아야 함**

- 일부 축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개최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입장료 징수를 통한 수익 모색, 기금 조성 등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지역 축제의 지속운동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직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현재 사무국이 상설화되어 있는 축제는 18개에 불과함**

- 지역 축제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지속운동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사무국의 상설화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편 충남의 지자체별 축제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남도 조례(제3915호) 외에도 대다수 지자체가 축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 특히 공주, 금산, 논산, 아산의 경우 관련 조례의 개정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민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 한편 계룡시, 연기군, 천안시는 지역 축제 관련 조례가 없음

## IV. 충남 지역 문화축제의 경쟁력 진단

### 1. 분석방법

- 충남 지역 문화축제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단계로 기존 문헌 자료와 통계현황 자료에 기초해 <축제운영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이어서 2단계로 <전문가 표적집단토론>을 진행
  - <축제운영 성과분석>의 경우, 개별 지역 축제 운영 성과와 관련해 공신력 있는 직접 통계 자료(수익금)의 활용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대체 지표로 지역 축제 현황 통계자료 중 ‘방문객 수<sup>3)</sup>’와 대외 수상이력 및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지정 여부,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탐색적인 경쟁력 조망을 시도
  - <전문가 표적집단토론>은 축제 운영 및 기획과 관련한 전문가 대상의 집단토론을 통해 충남 지역 축제의 특성과 경쟁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을 시도

### 2. 축제운영 성과분석

#### 1) 축제 방문객 수 (2016~2018년, 4개년)

- 방문객 수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충남 지역 축제 방문객 수 현황은 [표 IV-1]과 같고, 확인 결과, 지난 4년 간 충남 지역 축제 방문객 수(누적)는 61,415천 명으로 추산되며, 연 평균 15,354천 명이 충남 지역 축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축제 당 연 평균 방문 인원은 22만 명, 4개년 누적방문인원은 88.1만 명으로 확인
- 가장 많은 사람(4개년 누적 기준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지역 축제는 <보령머드축제(14,714천명)>, <백제문화제(공주/5,476천명)>, <계룡세계軍문화축제(3,942천명)>, <백제문화제(부여/3,742천명)>, <부여서동연꽃축제(3,081천명)>, <청라은행마

3) 방문객 수도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축제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자료 중에서 그나마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 문체부 지역 축제 총괄표에 방문객이 보고된 축제로만 분석대상 한정.

을축제(3,013천명), <천안홍타령춤축제(2,755천명)>, <금산인삼축제(1,845천명)>, <동백꽃·주꾸미축제(1,808천명)>, <논산딸기축제(1,680천명)>, <홍성남당항대하축제(1,130천명)>, <강경젓갈축제(1,123천명)>의 순으로 확인

- 그 외의 지역 축제는 4개년 누적 방문객의 수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누적 방문객이 10만 명 미만인 지역 축제도 44개인 것으로 나타남

○ 연 평균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축제 당 4개년 평균 100만 명 이상) 지역 축제는 <보령머드축제(3,679천명)>, <백제문화제(공주/1,369천명)>, <청라은행마을축제(1,004천명)>의 순으로 확인

- 한편 방문객 수 1만 명 이하의 축제도 32개가 존재하고, 심지어 1천 명 이하의 축제도 9개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방문객 추세를 확인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방문객 수가 증가했으나, 2019년의 방문객 수는 12,163천 명으로 전년대비 8,531천 명(41%) 급감

- <보령머드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백제문화제(공주)>, <백제문화제(부여)>,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방문객 급감

[표 IV-1] 충남 지역 축제 방문객 수 (2016~2018년, 단위: 천명)

연번	시군	축제명	직전년도 방문객수 (단위: 천명)					연평균
			2016	2017	2018	2019	누계(4년)	
1	천안시	천안홍타령춤축제	1,310	1,200	125	120	2,755	689
2	천안시	천안예술제	-	30	30	30	90	30
3	천안시	입장거봉포도축제	5	3	5	5	18	5
4	천안시	천안호두축제	5	1	10	10	26	7
5	천안시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	20	20	20	20	80	20
6	천안시	천안춤영화제	-	-	3	3	6	3
7	공주시	겨울공주군밤축제	-	200	-	88	288	144
8	공주시	백제어울마당	-	240	250	250	740	247
9	공주시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65	300	284	300	949	237
10	공주시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	42	57	178	178	455	114
11	공주시	계룡산벚꽃축제	-	0	300	301	601	200
12	공주시	계룡산산신제	4	3	2	3	12	3
13	공주시	마곡사신록축제	4	-	4	4	12	4
14	공주시	갑사황매화축제	-	-	-	-	-	-
15	공주시	공주항공축제	2	-	-	-	2	2
16	공주시	백제문화제	1,500	1,698	1,771	507	5,476	1,369

17	보령시	무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1	10	10	10	31	8
18	보령시	주산봄꽃축제	-	-	2	1	3	2
19	보령시	대천항수산물축제	1	-	15	15	31	10
20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조개구이축제	-	-	-	2	2	2
21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3,200	3,995	5,688	1,831	14,714	3,679
22	보령시	무창포해변예술제	-	-	-	1	1	1
23	보령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1	100	52	31	184	46
24	보령시	보령예술제	-	-	2	2	4	2
25	보령시	무창포대하·전어축제	1	10	10	10	31	8
26	보령시	보령김축제	30	80	80	80	270	68
27	보령시	청라은행마을축제	-	10	3,000	3	3,013	1,004
28	보령시	은새미로축제	-	-	2	2	4	2
29	보령시	천북굴축제	3	30	200	75	308	77
30	보령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	-	300	300	600	300
31	아산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	7	307	20	334	111
32	아산시	신정호별빛축제	20	8	9	9	46	12
33	아산시	도고코미디페스트	20	5	1	3	29	7
34	아산시	은행나무길축제	100	20	26	50	196	49
35	아산시	짚풀문화제	100	81	96	106	383	96
36	서산시	해미천벚꽃축제	-	-	-	100	100	100
37	서산시	지곡왕산포서산갯마을축제	4	8	8	8	28	7
38	서산시	류방택별축제	-	-	-	13	13	13
39	서산시	팔봉산감자축제	미개최	54	55	56	165	55
40	서산시	서산6쪽마늘축제	-	-	-	30	30	30
41	서산시	삼길포우럭축제	43	50	50	20	163	41
42	서산시	서산빨나지먹물축제	70	58	-	58	186	62
43	서산시	서산어리굴젓축제	50	15	15	15	95	24
44	서산시	서산해미음성축제	230	200	220	230	880	220
45	서산시	철새기행전	-	5	3	2	10	3
46	서산시	서산국화축제	143	175	182	182	682	171
47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252	265	290	316	1,123	281
48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560	미실시	620	500	1,680	560
49	논산시	연산대추축제	100	80	80	50	310	78
50	논산시	양촌곶감축제	130	100	100	100	430	108
51	계룡시	계룡세계軍문화축제	860	1,182	1,180	720	3,942	986
52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200	100	50	50	400	100
53	당진시	순성매화벚꽃축제	취소	1	1	1	3	1
54	당진시	장고항실치축제	20	2	2	2	26	7
55	당진시	면천진달래민속축제	미집산	1	1	1	3	1
56	당진시	한진바지락축제	10	1	1	1	13	3

57	당진시	버그내연호문화축제	-	-	5	5	10	5
58	당진시	삼교호조개구이축제	30	3	3	30	66	17
59	당진시	심훈상록문화제	50	5	5	10	70	18
60	당진시	남이흥장군문화제	-	-	-	1	1	1
61	당진시	왜목해돋이축제	100	-	-	50	150	75
62	금산군	금산인삼축제	872	-	미개최	973	1,845	923
63	금산군	금강여울축제	5	6	7	6	24	6
64	금산군	비단고을산꽃축제	9	10	12	8	39	10
65	금산군	남일면홍도화축제	-	-	6	10	16	8
66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650	1,102	1,014	315	3,081	770
67	부여군	백제문화제	1,200	1,000	1,000	542	3,742	936
68	부여군	부소산봄축제	-	-	-	-	-	-
69	서천군	동백꽃·주꾸미축제	420	450	468	470	1,808	452
70	서천군	자연산광어·도미축제	224	250	250	220	944	236
71	서천군	장항항수산물깎감축제	251	195	200	150	796	199
72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	260	287	300	847	282
73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여름문화예술축제	6	60	20	16	102	26
74	서천군	홍원항전어·꽃게축제	150	160	160	17	487	122
75	서천군	해랑들랑어울제	-	-	20	29	49	25
76	서천군	서천군산금강철새여행	30	38	40	39	147	37
77	청양군	칠갑장승문화축제	20	30	30	30	110	28
78	청양군	청양고추구기자축제	160	170	150	185	665	166
79	홍성군	홍성역사인물축제	50	70	79	67	266	67
80	홍성군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10	4	30	30	74	19
81	홍성군	홍성남당항대하축제	30	100	500	500	1,130	283
82	홍성군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20	100	235	300	655	164
83	예산군	윤봉길평화축제	29	20	9	24	82	21
84	예산군	의좋은형제축제	-	10	7	10	27	9
85	예산군	예산장터삼국축제	-	-	77	105	182	91
86	예산군	예산황토사과축제	-	-	-	-	-	-
87	태안군	태안문화제	-	-	-	1	1	1
88	태안군	몽산포항주꾸미&수산물축제	1	144	138	114	397	99
89	태안군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	1	144	302	311	758	190
90	태안군	이원면가재산벚꽃길	-	-	-	1	1	1
91	태안군	태안튕립축제	-	398	-	400	798	399
92	태안군	태안수선화축제	-	-	-	70	70	70
<b>연합계</b>			13,424	15,134	20,694	12,163	(61,415)	(15,354)
<b>연평균</b>			231	233	280	137	(881)	(22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의 자료를 재가공.

## 2)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결과

○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충남 지역 문화관광축제 선정현황<sup>4)</sup>은 [표 IV-2]와 같음

[표 IV-2] 충남 지역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최근 10년, 2010년~2019년)

연도	연간 개최 (건)	문체부 선정 (건)	등급구분				
			글로벌육성 <sup>1)</sup>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2010	76	5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흥터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1	68	3			천안흥터령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금산인삼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2	63	5			금산인삼축제 천안흥터령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2013	64	6			천안흥터령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가시곶다막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2014	58	4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축제
2015	56	6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축제 금강어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2016	90	4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2017	90	3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축제
2018	93	4(2)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식장미구석(축제) *역사인물축제 <sup>2)</sup>
2019	92	5(1)	보령머드축제				서신해미읍성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무장포비닷길축제 <sup>2)</sup>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및 문체부 보도자료(2018.12.31.).

주1) 주2): “글로벌 육성” 과 “육성” 등급 축제는 번외

4) 지자체에서 선별해 올린 축제를 대상으로 심사. 2016년부터는 작성대상 기준이 2일 이상 개최된 축제로 변경

○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의 지역 축제가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9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육성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포함해 5개의 지역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이력을 지닌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흥타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기지사줄다리기축제>, <해미읍성축제>, <금강여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로 확인
- 2010년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흥타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 2012년 <부여서동연꽃축제> 신규 진입
- 2013년 <기지사줄다리기민속제>, <해미읍성축제> 신규 진입
- 2015년 <금강여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신규 진입
- 2018-2019년 육성등급 <석장리구석기축제>, <역사인물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선정

### 3) 그 밖의 대외 수상 등 실적

○ 문화관광축제 선정 축제(육성 등급 포함 13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최근 10년 간 충남 지역 축제 중 정부 및 지자체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상 및 인증 이력을 보유한 축제는 6개로 그 세부사항은 [표 IV-3]과 같음

[표 IV-3] 문화관광축제 이외의 지역 축제들의 대외 수상 및 인증 성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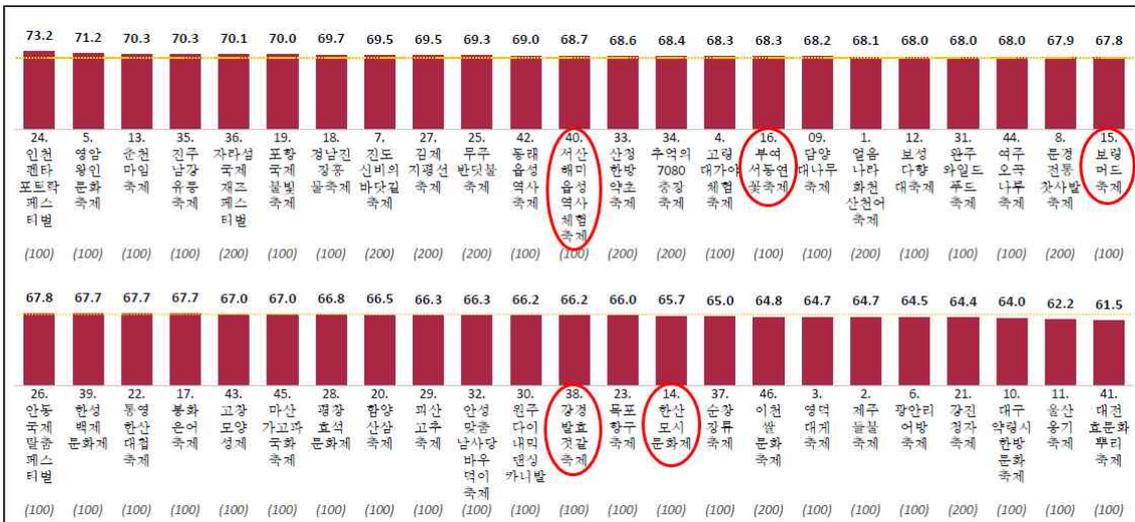
축제명	대외 수상 및 인증 이력
거울공주군밤축제	2019, 피너클어워드 특별프로그램 부문 수상
갑사향매화축제	2019, 공주시 공식지역 축제 선정
서산국화축제	2016-2019,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지역 축제부문 대상(브랜드경영협회)
논산딸기축제	2014, 대표브랜드상 지역 축제부분 최우수상 2015, 충청남도 대표축제로 선정 2016,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 지역 축제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 3년 연속 수상)
계룡세계군문화축제	2016, 계룡군문화축제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로 국제행사 승격 2018,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동백꽃·주꾸미축제	2018,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뉴프론티어 상 수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 4)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 평가조사 결과(2016년 기준)

○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 평가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엠브레인, 2016) 충남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소비자 만족도는 [그림 IV-1]과 같이 전국의 타 문화관광축제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인 것으로 확인

- <서산해미읍성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소비자만족도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강경발효젓갈축제>와 <한산모시문화제>의 소비자 만족도는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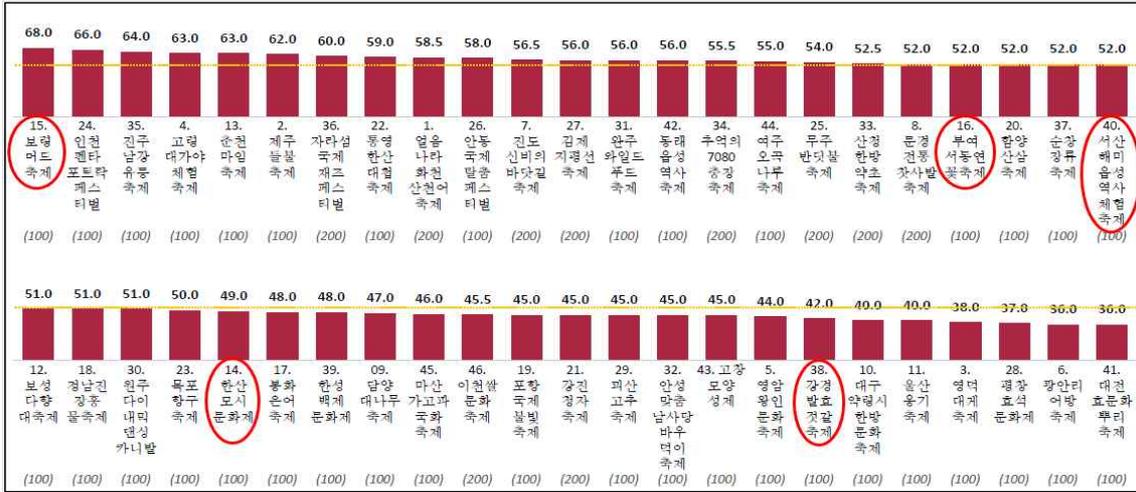
[그림 IV-1] 전국 문화관광축제의 전반적 만족도

출처: 엠브레인(2016). 30p.

○ 이어서 타 지역 축제 대비 차별성 부문에서는, [그림 IV-2]와 같이 <보령머드축제>가 전체 문화관광축제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

-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는 축제의 차별성과 관련한 소비자 평가에서 대체로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한산모시문화제>와 <강경발효젓갈축제>는 차별성 부문에서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평균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

5) 축제 기간 내 문화관광축제 방문자인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5,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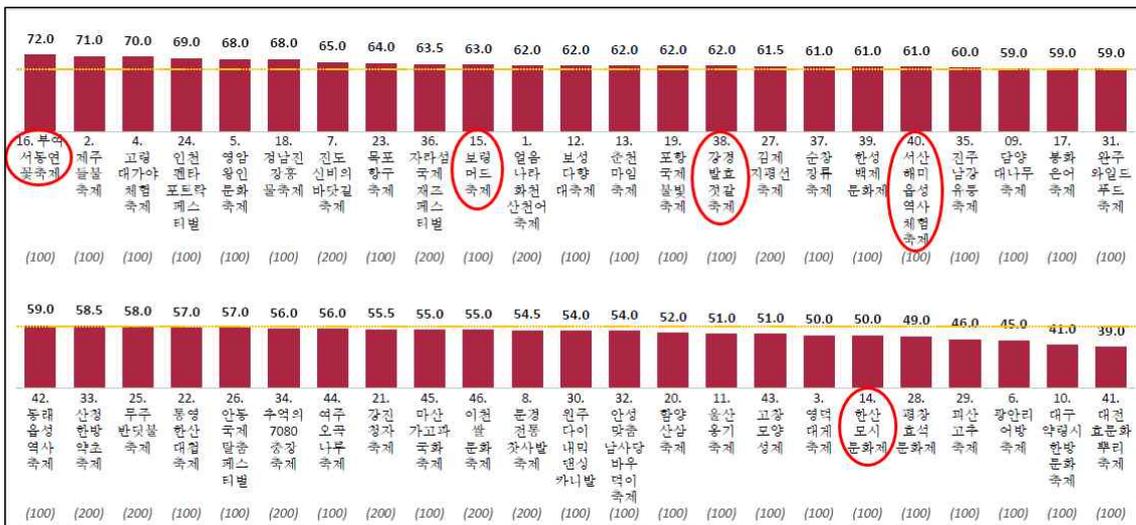


[그림 IV-2] 전국 문화관광축제의 상대적 차별성

출처: 엠브레인(2016). 33p.

○ 한편 축제 재방문 및 타인 추천 의향에서는 [그림 IV-3]과 같이 <서동연꽃축제>가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

- <보령머드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의 경우도 재방문 및 추천 의도가 대체로 우수한 편으로 확인됨. 그러나 <한산모시문화제>는 긍정적이지 못함



[그림 IV-3] 전국 문화관광축제 재방문 및 타인추천 의사

출처: 엠브레인(2016). 32p.

### 3.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토론

#### 1) 조사개요

○ 충남 지역 축제의 경쟁력 진단 및 발전방안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토론을 시행

- 충남 지역 축제 안내 기초자료와 토론 요지를 이메일로 사전 송부하고(2019년 10월 8일), 2019년 10월 15일(화) 순천향대학교 유니토피아관에서 2시간여 동안 표적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이하 FGD)을 진행
- 모더레이터(글로벌문화산업학과곽규태 교수)의 진행 하에 3개 사안에 대해 집단토론
  - ① 충남 지역 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 ② 타 지역 대비, 충남 지역 축제의 차별성 및 경쟁력의 진단
  - ③ 충남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후 고려할 사항
- 한편 참여 전문가 5명은 모두 지역 축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관련 연구와 평가 등에 참여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문가 정보는 [표 IV-1]과 같음
- 참여 전문가들의 세부 전공 분야는 콘텐츠, 문화산업 및 관련 정책, 관광 산업, ICT/미디어,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구성

[표 IV-4] FGD 참여 전문가 정보

역할구분	ID	전문분야	소속	경력
모더레이터	A1	문화산업/정책, 콘텐츠	순천향대학교	18년
전문가패널	B1	관광산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년
	B2	ICT/미디어	연세대학교	7년
	B3	문화산업/정책, 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14년
	B4	문화산업/정책, 콘텐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15년
	B5	중소기업, 창업/일자리	중소기업연구원	21년

## 2) FGD 결과

- 전문가 5인과 연구자가 모여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요약  
을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토론결과 기술 시 발화자는 모더레이터와 전문가 ID로  
나누어 표기함

### (1) 충남 지역 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 다양한 축제 기획의 시도는 긍정적이나, 정책적 관점에서 축제 운영 및 관리, 기  
획 체계가 다소 부실하다는 의견이 중론
  - 축제의 양적 풍부함은 장점으로 평가하는 위원이 다수. 다만 기본적인 지역 축제의 개  
념과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가 부재하고, 이들 축제의 평가기준과 육성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을 지적
  - 특히 도정의 업무에서 지역 축제 육성의 과업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조례 규정이 체계성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축제의 산업화나 상품화 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군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축제운영 조직의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전문가(B3):** 축제에 관한 충남의 조례를 찾아보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같이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지엽적으로 규정하고 있더  
라구요.

**전문가(B4):** 저도 지금 관련 조례를 보니, 축제의 육성과 축제의 평가 기능을 분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축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규정이  
없네요. 기획업무에 가까운 축제육성위원회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투입의 근거 확보를 위한 축제평가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B5):**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서 젊은 층의 수요를 반영하는 트렌드에 둔감해  
보입니다. 더불어 민간 투자나, 수익상품 개발이 아주 열악하다고 판단합니  
다. 수익화 방안에 대한 기획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2) 타 지역 대비, 충남 지역 축제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지역의 고유한 문화성, 지역정체성과 연계된 축제의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타 지자체와 유사한 축제가 매우 많다는 의견이 중론

- 특산물, 지리적 특성, 생태자원, 역사적 고증에 기인한 축제가 대다수라는 평가(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와 더불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축제 소재가 적어 보인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 현재적, 대중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재해석, 지역 정체성과 정신세계에 대한 재해석,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축제 소재, 특정 계층을 겨냥한 축제 소재 등 보다 다양한 축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전문가(B1):** 이미 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특산물, 지리, 역사에 기반한 축제를 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차별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큰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문화자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방문객의 수요만을 고려해 축제의 소재를 만들고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자라섬이나 펜타포트락페스티벌처럼요..

**전문가(B3):**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의 여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축제 소재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같은 소재를 다루더라도 관점과 운영만 달라도 효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현대적으로 결합하는 시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백제문화유적과 유튜버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술창작집단과 특산물의 연계, 지역 문화자원과 스포츠테마를 엮는 시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의 이점, 예부터 전수되어 온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양시설 등이 주요 소재로 활용될 경우 경쟁력과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지역의 내재된 경쟁우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무엇보다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 해수욕(해양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한편 지역의 문화자원에 집착하지 말고(타 지자체도 충분히 보유), 창의적 해석과 기획

으로 축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전문가(B2):** 충남 전역이 그렇지는 않지만, KTX 역 인근은 사실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제의 소재난 이런 것보다 교통이나 이동의 편의성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도 관람객 유인에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충남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B5):** 공감합니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서해바다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느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축제 관광객이 돈이 되려면 숙박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바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방문객 유치에 매우 큰 유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관광과 연계해 지역 축제를 더욱 개발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충남이 지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다면 훌륭한 상품이 될 것 같네요.

### (3) 충남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후 고려할 사항

- 축제 개최지와 연계되는 교통, 현지에서의 숙박, 편의시설의 기준을 다소 높여서 관리할 필요성(김지학, 2018)
  - 특히 젊은 층과 여성 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 모바일 앱 등 전반적인 ICT 활용 및 관련 인터넷 공간에 축제 콘텐츠의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이용자 기반 축제 콘텐츠의 생성과 확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축제 정보콘텐츠의 개발이 주요 고려 사항으로 언급 되었으며, 주변 관광정보,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고객관리 역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민간 자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축제 부대상품 개발의 고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고급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과 같은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전문가(B1):** 앞서 나왔던 의견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도 교통과 숙박 편의시설 등이 관광지나 축제 관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흔히 보면 이 사안에 대해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수도권 등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여요.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일반적으로 더 높죠. 지역에선 이것을 너무 가볍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최근 강릉이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기존에 있던 바다가 아니라, KTX와 해안가 카페골목 등 전반적인 관광 편의성과 쾌적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근대 대부분의 지역 축제 현장에 가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에 대해 가끔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서 개최를 해도, 기본적인 청결과 위생, 안전은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관이 전반적으로 축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B2):** 저는 축제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회의에 오기 전에 모바일로 관련 대표 축제들을 검색해 봤는데, 모바일 앱이 있는 축제가 거의 없더라구요. 축제 콘텐츠는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바일(유선PC말고) 기반 정보 제공과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보검색으로 잘 나오지 않는 축제를 굳이 찾아갈 관광객이 많을까요?

**전문가(B5):** 공감합니다. 이런 건 민간이 잘하죠. 지나치지 않을 수준에서의 민간 투자를 적절히 유인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 지역 축제와 관련한 정보가 일단 풍부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의 창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약간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ICT기반 구축과 콘텐츠 생성을 하려면, 더불어 앞서 논의한 얘기지만 축제와 관련된 콘텐츠 정보 외에도, 세련되고 사고 싶은 축제연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쇼핑이 즐겁게 브랜드와 포장, 운반 등의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접속으로 구매도 연결하면 아주 편리하겠죠. 자라섬에 갔을 때인데 비싸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기념품들이 매우 고급스러워 사고 싶다는 충동을 받았었습니다.

### 3. 소결 및 시사점

- 4장에서는 충남 지역 문화축제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축제운영 성과분석>과 <전문가 표적집단토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축제운영 성과분석>: 지역 축제 현황 통계자료 중 ‘방문객 수’, 대외 수상이력 및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지정 여부,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만족도 조사 종합 검토
  - <전문가 표적집단토론>: 축제 운영 및 기획과 관련한 전문가 대상 집단토론을 통해 충남 지역 축제의 특성과 경쟁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을 시도
  
- <축제 방문객 수> 분석 결과, 충남 지역 축제 방문객 수(누적)는 지난 4년 간 61,415천 명, 연 평균 방문객은 15,354천 명으로 추산
  - 방문객 성과가 우수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백제문화제(공주)>,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백제문화제(부여)>, <부여서동연꽃축제>로 확인
  - 연도별 방문객 성과에서 2019년의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41% 급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보령머드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백제문화제(공주)>, <백제문화제(부여)>,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방문객이 2019년 기준 전년대비 크게 감소
  
- 지난 10년간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이력을 보유한 축제는 총13개로 확인되며, 2019년의 경우 글로벌 육성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포함해 5개의 지역 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상황
  -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2010년부터 현재까지) 선정 이력을 지닌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기지사줄다리기축제>, <해미읍성축제>, <금강여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석장리구석기축제>, <역사인물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로 확인되어 기초 경쟁력이 확인되는 상황(총 13개)
  - 그밖에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급은 아니지만 <겨울공주군밤축제>, <갑사황매화축제>, <서산국화축제>, <논산딸기축제>,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동백꽃·주꾸미축제>는 축제 운영과 관련한 대외 수상 및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경쟁력을 키워가는 상황

○ 한편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 평가조사>에 의하면, 충남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소비자 만족도는 전국 평균 수준인 것으로 확인

- 개별 축제 부문에서 <서산해미읍성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소비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고무적인 것은 축제 차별성 부문에서 <보령머드축제>, 축제 재방문 및 타인 추천 의향 부문에서 <서동연꽃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

○ 이어서 충남 지역 축제의 경쟁력 진단 및 발전방안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토론>을 시행한 결과,

- [충남 지역 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는 다양한 축제 기획의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정책적 관점에서 축제 운영 및 관리, 기획 체계가 다소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축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분명히 하고, 도정 업무에 지역 축제 육성의 과업을 명확히 특정함과 동시에, 축제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축제의 산업화나 상품화 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과 축제운영 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고민과 관리가 필요
- [타 지역 대비, 충남 지역 축제의 차별성 및 경쟁력]에 대한 인식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성, 지역정체성과 연계된 축제의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적, 대중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재해석, 지역 정체성과 정신세계에 대한 재해석,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축제 소재, 특정 계층을 겨냥한 축제 소재 등 보다 다양한 축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
-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예부터 전수되어 온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양시설 등을 지역의 주요 축제소재와 경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충남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젊은 층과 여성 층의 유입을 위해 축제 개최지와 연계되는 교통, 현지에서의 숙박, 편의시설의 기준을 다소 높여서 관리할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
- 동시에 모바일 앱 등 전반적인 ICT 활용 및 관련 인터넷 공간에 축제 콘텐츠의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민간 자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축제 부대 상품 개발의 고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를 강조함

## V. 결론 및 논의

### 1.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는 충남 지역의 문화축제 현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시행해 향후 정책적 개선점을 모색하였으며, 각 장의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함
- 2장 <지역 축제의 개념, 유형 및 특성>에서는 지역 축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기존문헌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화관광축제의 개념,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발전과정 및 성과, 지역 축제의 경제·사회·문화·정책적 특성, 지역 축제의 육성방안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음
- 3장 <충남 지역 축제 현황 및 운영실태>에서는 문체부 공개 자료와 연구진이 자체 수집한 2차 자료를 결합해 충남 지역 축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고, 충남 지역의 축제 육성 자치법규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남 지역의 축제는 2019년 기준 92개로 전남(107개), 경기(105개), 서울(93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축제의 대부분은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이기에, 일각에서는 축제의 폭증, 축제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축제의 기획·운영 전반에 걸쳐 현행 축제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개선하여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축제의 기반을 다져갈 필요

[표 V-1] 2019 충남 지역 축제 현황(92개)

연번	축제명	연번	축제명	연번	축제명
1	천안흥터령춤축제	32	신정호 별빛축제	63	2019 금강여울축제
2	천안예술제	33	도고 코미디 페스트	64	2019 비단고을 산꽃축제
3	입장거봉포도축제	34	은행나무길 축제	65	제12회 남일면홍도화축제

4	천안호두축제	35	짚풀문화제	66	제17회 부여서동연꽃축제
5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	36	해미천 벚꽃축제	67	부소산 봄 축제
6	천안춤영화제	37	지곡 왕산포서산갯마을축제	68	동백꽃·주꾸미 축제
7	겨울공주 군밤축제	38	류방택 벌축제	69	자연산 광어·도미 축제
8	백제 어울마당	39	팔봉산 감자축제	70	장항항 수산물 꿀갑 축제
9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40	서산6쪽 마늘축제	71	한산모시문화제
10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41	삼길포우럭축제	72	춘장대해수욕장여름문화예술축제
11	계룡산 벚꽃축제	42	서산뻥낙지먹물축제	73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12	계룡산 산신제	43	서산어리굴젓축제	74	해랑들랑 어울제
13	마곡사 신록축제	44	서산해미읍성축제	75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14	갑사황매화축제	45	2019 철새기행전	76	칠갑장승문화축제
15	공주항공축제	46	서산국화축제	77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16	백제문화제(공주)	47	강경젓갈추제	78	홍성역사인물축제
17	무창포주꾸미·도다리축제	48	논산딸기축제	79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18	주산봄꽃축제	49	연산대추축제	80	홍성남당항대하축제
19	대천항 수산물축제	50	양촌곶감축제	81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20	대천해수욕장조개구이축제	51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82	제46회 윤봉길평화축제
21	보령머드축제	52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83	의좋은 형제축제
22	무창포해변예술제	53	순성매화벚꽃축제	84	제3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23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54	장고항실치축제	85	제16회 예산항도 사과축제
24	보령예술제	55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86	제14회 태안 문화제
25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56	한진바지락축제	87	제10회 몽산포항 주꾸미&수산물 축제
26	보령 김 축제	57	버그내연호문화축제	88	제20회 안면도백사장대하축제
27	청라은행마을축제	58	삼교호조개구이축제	89	이원면 가재산 벚꽃길
28	제15회 온새미로축제	59	심훈상록문화제	90	태안 툄립 축제
29	천북굴축제	60	남이흥장군문화제	91	태안 수선화 축제
30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61	왜목해돋이축제	92	백제문화제(부여)
31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62	제38회 금산인삼축제		

- **특징적으로 충남 지역 축제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특산품(특히 수산물)이나 생태자연(꽃)을 소재로 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음**
  - 충남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봄철의 경우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여름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축제, 가을은 농수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다수 개최되고 있으나, 동일 소재를 활용한 유사 축제의 중복도 존재함
  - 축제의 정체성 측면에서 충남의 축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역사·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가 다소 저조하며, 지역 축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화성이나 지역성의 의미를 반영한 축제 기획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축제의 소재 및 특성이 다소 획일화되어 있고, 최근 축제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지역 축제는 축제별로 참여대상이 뚜렷해지고 있기에, 기존 가족 단위의 참여자와 참가계층을 확대하려는 기획방향이 필요함
  - 또한, 기존의 주간 프로그램 중심에서 야간프로그램 중심의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
- **충남 지역 축제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있기에 지역 축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축제가 국비, 시·도비, 구·군비 단일 예산에 의존
  - 자부담 비율이 매우 낮고, 이러한 국비, 시·도비, 구·군비 예산에 의지하는 축제의 예산구조는 축제가 지향하는 바와 축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영향
  - 특히,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민간 부분의 투자·스폰서십, 수익과 관련된 상품판매, 입장료 수익 등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모색해보아야 함
- **또한, 지역 축제의 지속운동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조직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현재 사무국이 상설화되어 있는 축제는 18개에 불과함**
  - 지역 축제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인 지속운동을 위해서는 규모 있는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사무국의 상설화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한편 충남의 지자체별 축제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충남도 외에도 대다수 시·도 지자체가 축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 공주, 금산, 논산, 아산의 경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민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반면 계룡시, 연기군, 천안시는 지역 축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필요

[표 V-2] 충남 지자체별 축제 관련 자치법규 현황

연번	지자체	종류	법규명	제/개정일
1	충남도	조례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4-07-10
2	계룡시	-	(없음)	-
3	공주시	조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8-02-28
		지침	공주시 축제 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	2019-02-01
4	금산군	조례	금산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6-28
		조례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08-16
5	논산시	조례	논산시 강경절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17-06-20
		조례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18-09-20
6	당진시	조례	당진시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28
7	보령시	조례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19-08-20
8	부여군	조례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2018-12-14
9	서산시	조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018-11-20
10	서천군	조례	서천군 지역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10-21
11	아산시	조례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3-09
		조례	아산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2019-03-15
12	연기군	-	(없음)	-
13	예산군	조례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2009-05-12
14	천안시	-	(없음)	-
15	청양군	조례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18-12-15
16	태안군	조례	태안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05
17	홍성군	조례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7-05-30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9년 10월 30일.

■ 4장 <충남 지역 문화축제의 경쟁력 진단>에서는 충남 지역 문화축제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축제운영 성과분석>과 <전문가 표적집단토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축제운영 성과분석>: 지역 축제 현황 통계자료 중 ‘방문객 수’, 대외 수상이력 및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지정 여부,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만족도 조사 종합 검토

- <전문가 표적집단토론>: 축제 운영 및 기획과 관련한 전문가 대상 집단토론을 통해 충남 지역 축제의 특성과 경쟁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을 시도

[표 V-3] 충남 지역 축제의 <문화관광축제> 선정 현황 (최근 10년, 2010년~2019년)

연도	연간 개최 (건)	문체부 선정 (건)	등급구분				
			글로벌육성 <sup>1)</sup>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2010	76	5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흥터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1	68	3			천안흥터령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금산인삼축제	한산모시문화제
2012	63	5			금산인삼축제 천안흥터령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2013	64	6			천안흥터령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가시골다막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2014	58	4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축제
2015	56	6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축제 금강어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2016	90	4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함축제
2017	90	3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축제
2018	93	4(2)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해미읍성축제 *식장리구석기축제 <sup>2)</sup> *역사인물축제 <sup>2)</sup>
2019	92	5(1)	보령머드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무창포비대길축제 <sup>2)</sup>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및 문체부 보도자료(2018.12.31.).

- <축제 방문객 수> 분석 결과, 충남 지역 축제 방문객 수(누적)는 지난 4년 간 61,415천 명, 연 평균 방문객은 15,354천 명으로 추산
  - 방문객 성과가 우수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백제문화제(공주)>,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백제문화제(부여)>, <부여서동연꽃축제>로 확인
  - 연도별 방문객 성과에서 2019년의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41% 급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보령머드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백제문화제(공주)>, <백제문화제(부여)>,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방문객이 2019년 기준 전년대비 크게 감소
- 지난 10년간 <문체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이력을 보유한 축제는 총13개로 확인되며, 2019년의 경우 글로벌 육성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포함해 5개의 지역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상황
  -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이력을 지닌 축제는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강경젓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기지시줄다리기축제>, <해미읍성축제>, <금강여울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석장리구석기축제>, <역사인물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로 확인(총 13개)
  - 그밖에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급은 아니지만 <겨울공주군밤축제>, <갑사황매화축제>, <서산국화축제>, <논산딸기축제>, <계룡세계군문화축제>, <동백꽃·주꾸미축제>는 축제 운영과 관련한 대외 수상 및 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경쟁력을 키워가는 상황
- 한편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대상 <소비자 평가조사>에 의하면, 충남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소비자 만족도는 전국 평균 수준인 것으로 확인
  - 개별 축제 부문에서 <서산해미읍성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소비자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고무적인 것은 축제 차별성 부문에서 <보령머드축제>, 축제 재방문 및 타인 추천 의향 부문에서 <서동연꽃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
- 이어서 충남 지역 축제의 경쟁력 진단 및 발전방안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토론>을 시행한 결과,
  - [충남 지역 축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는 다양한 축제 기획의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정책적 관점에서 축제 운영 및 관리, 기획 체계가 다소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축제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분류체계를 분명히 하고, 도정 업무에 지역 축제 육성의 과업을 명확히 특정함과 동시에, 축제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더불어 축제의 산업화나 상품화 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견과 축제운영 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고민과 관리가 필요
- [타 지역 대비, 충남 지역 축제의 차별성 및 경쟁력]에 대한 인식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성, 지역정체성과 연계된 축제의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적, 대중적 관점에서 공간에 대한 재해석, 지역 정체성과 정신세계에 대한 재해석,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축제 소재, 특정 계층을 겨냥한 축제 소재 등 보다 다양한 축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
- 이와 더불어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예부터 전수되어 온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양시설 등을 지역의 주요 축제소재와 경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충남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젊은 층과 여성 층의 유입을 위해 축제 개최지와 연계되는 교통, 현지에서의 숙박, 편의시설의 기준을 다소 높여서 관리할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
- 동시에 모바일 앱 등 전반적인 ICT 활용 및 관련 인터넷 공간에 축제 콘텐츠의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민간 자본 투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및 축제 부대 상품 개발의 고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를 강조함

## 2. 충남 지역 문화축제 경쟁력 강화방안<sup>6)</sup>

### (1) 축제관련 조례 개정

- 지역 문화축제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축제 관련 자치법규를 개선할 필요
  - 충남도 차원의 축제관련 조례는 2007년 제정된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유일([표 V-4] 참조)
  -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시키는데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해 ‘축제육성위

6)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

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주안점

[표 V-4] 충남 축제 관련 조례 현황

법규명 (종류)	조례번호 (개정번호)	주요내용 (목적 등)
충청남도 축제육성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277호 (제39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일 (최근개정일)	제2조(기능)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07.10.01. (2014.07.10.)	1. 충청남도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9년 10월 30일.

- 한편 <표 V-5>와 같이,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도 서울, 인천, 경남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축제 관련 자치법규를 지정해 운영 중인 상황
- 타 지자체와의 자치법규 비교를 통해 향후 충남도 축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충남의 조례는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타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지사 자문기구로서의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이 육성위원회의 기능(심의/의결 안건, 제2조), 구성(제3조), 임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역 축제의 정의,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 발생
  - 둘째, 조문 자체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예컨대 지역 축제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제도마련과 여건 조성 및 시책 강구 등)에 대해 미규정하고 있으며, 도 지정축제의 선정방법 및 축제종류(등급)에 관한 사항, 지역 축제 선정과 관련한 시/군과 도의 역할 체계, 선정 축제에 대한 지원근거 등이 조례 수준에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광주, 전남, 경북 등의 사례처럼 축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산업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충남만의 고민을 반영할 필요 => 현 조례규정 중 축제육성위원회의 임무(제2조)에서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축제육성위원회와

축제평가단은 별도의 조직체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 운영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축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칙(예: 광주광역시) 제정을 검토할 필요

- 한편 특색 있는 지자체 법규로는 관람료 등의 수익금 관리 및 수익금 정산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 수익사업 등의 운영 및 관리방안을 구체화한 전남의 사례, 지역 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를 제정해 환경 친화적 지역 축제를 육성하려는 경북의 사례, 지역 축제지원을 위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 경기도의 사례가 특징적

[표 V-5] 축제 관련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현황

연번	지자체	종류	법규명	법규번호 (최근)
1	충남	조례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915호
2	서울	-	(없음)	
3	부산	조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638호
4	대구	조례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845호
5	인천	-	(없음)	
6	광주	조례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제5295호
		규칙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84호
7	대전	조례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제5288호
8	울산	조례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89호
9	세종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53호
10	경기	조례	경기도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제4651호
11	강원	조례	강원도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제4367호
12	충북	조례	충청북도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47호
13	전북	조례	전라북도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553호
		조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4367호
14	전남	조례	전라남도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740호
		규칙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95호
15	경북	조례	경상북도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제3594호
		조례	경상북도 지역 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장려 조례	제3467호
16	경남	-	(없음)	
17	제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39호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일: 2019년 10월 30일.

## (2) 축제 육성체계 정립 및 지역 관광활성화 연계

- 지역 축제의 육성(재정 지원 등) 및 진흥을 위한 업무를 구체화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지역 축제 육성 및 평가 등의 질 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필요
  - 지역 축제 육성계획(연간/중장기 계획수립)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평가체계의 체계화가 필요
  - 전담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시/도별 담당자의 운영협의체 구성 필요
- 충남 지역 축제의 육성에 있어 ‘지역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평가 가치로 정립될 필요가 있고, 이에 근거해 지역별 특색 있는 지역 문화관광·향토 축제를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
  -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 2018a) [표 V-6]과 같이, 충남 지역의 관광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사, 타인추천 의향의 부문에서 전국 지자체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개인여행보다 가족여행 부문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충남 지역 관광의 항목별 만족도: 자연경관(13위), 문화유산(10위), 교통(14위), 숙박(13위), 식당/음식(14위), 쇼핑(11위), 관광정보(10위), 관광 편의시설(17위), 관광종사자 친절성(14위), 체험프로그램(13위), 관광지 물가(6위), 혼잡도(10위)

[표 V-6] 충청남도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2017년)

평가항목 / 지자체구분		가족여행(순위)			개인여행(순위)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전반적 관광만족도	충남	3.89	3.96	<b>3.88(16)</b>	3.97	3.97	<b>3.96(13)</b>
	(17개지자체평균)	4.05	4.04	4.05	4.04	4.05	4.05
재방문 의사	충남	3.85	3.89	<b>3.84(17)</b>	3.90	3.92	<b>3.86(15)</b>
	(17개지자체평균)	4.01	4.00	4.00	3.99	4.01	4.00
타인추천 의향	충남	3.83	3.87	<b>3.83(15)</b>	3.89	3.93	<b>3.92(12)</b>
	(17개지자체평균)	3.97	3.97	3.95	3.96	3.99	3.9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7국민여행실태조사. 46~48p.

- 지역 축제의 육성 정책을 지역 관광의 활성화와 명확히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시도 협력체계에 기반해 특색 있는 지역 문화관광·향토 축제를 육성하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반드시 수립되도록 독려가 필요
- 이와 더불어 시/군의 유사 축제를 통합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방식, 인접 지역의 축제를 패키징하는 방식의 협력 등을 통해 관광객 관점에서의 가치에 접근할 필요
- 기타 축제/관광만족도를 저해하는 불만족 요인 개선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

### (3) 기타 수요맞춤형 축제 차별화, 상품화 노력 강화

- 앞서 연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 지역의 축제는 최근 축제의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축제 콘텐츠 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차별성과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최락인, 2011; 한국관광공사, 2018.12)
- 고객층(타케팅)을 세분화하고, 차별적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 가족 단위 방문객의 다양한 수요층(연령, 지역, 방문객 특성)을 겨냥한 지역 축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
  - 야간 프로그램 강화(주간 중심 프로그램에서), 숙박 프로그램 강화(당일 체험프로그램에서), 상설 프로그램 강화(일회적 개최에서)의 측면으로 축제 기획을 다변화
  - 축제 콘텐츠의 질 향상 및 부가상품 개발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참여유도 및 소비자 참여형 축제 기획으로 전환 유도
  - 모바일 앱 운용 강화: 축제 개최정보 및 축제 콘텐츠를 인터넷/모바일 상에 적극적으로 노출해 구전효과를 강화할 필요(최경은·안희자·오유라, 2018).
  - 기타 지역 교통편의성 및 ICT이용환경(와이파이, QR코드 등)의 체계적 개선을 지원 등 (김규찬·이성민·김현주·윤 주, 2017; 김향자·김송이, 2015)

##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 지역 축제 운영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시행 필요
  -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 92개 외에, 잠재 후보군인 향토축제까지를 포함해 지역

축제 전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가 확보될 필요

○ 지역 축제 방문객에 대한 자체 소비자만족도 시행 정례화 필요

- 문체부에서 1년 주기로 시행하는 축제만족도 조사 외에 지역 자체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시행해 관련 결과를 토대로 축제 운영 및 기획에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향후 이를 보완해 갈 필요
- 아울러 충남 지역 축제 방문고객 특성과 행태에 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축적해 갈 필요

○ 축제 성과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누적 및 관리체계 필요

- 객관적인 축제운영 성과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성과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해 필수적인 성과정보를 특정하고 이에 대해 DB화를 진행할 필요
- 방문객 수 외에, 상품판매 실적, 수익 지표, 브랜드 인지도, 지역 관광성과 개선도 등

## 참고문헌

- 강원발전연구원(2001), 강원도 문화관광축제 실태분석 및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 김경태 (2010). 충남 지역 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10-20.
- 김규찬·이성민·김현주·윤 주 (2017).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기초연구 2017-01.
- 김지학 (2018). 국민의 여행지 선택 이유와 만족도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시연구 2018-02.
- 김향자·김송이 (2015).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광 교통 서비스 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5-32.
- 류정아 외 (2006). 한국 지역 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8.12.31.). 보도자료: 문체부,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41개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2018a).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분석편).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314001호.
- 문화체육관광부(2018b). 지역 분권화 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연구: 관광두레, 글로컬 관광, 지역별 특화관광을 중심으로.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0~2019). 연도별 전국시·도별 문화관광축제현황 총괄표.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오순환·정강환 (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오훈성 (2013).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3-20.
- 오훈성 (2016).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른 효과 분석: 2010년~2016년 지정등급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2016-24.
- 이 오 (2001).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감사원 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2007-O05.
- 엠브레인 (2016.12.29.). 2016 문화관광축제 소비자 평가조사 통합보고서.
- 최경은·안희자·오유라 (2018). 온라인 개별관광상품 시장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 2018-09.

- 최락인 (2011). 지역문화축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155-181.
- 한국관광공사 (2018.12).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국내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19 트렌드 전망.
- 한국관광공사(2013).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산업 발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